www.doosaninfracore.com
www.doosaninfra.com

Doosan Infracore Annual Report 2010

Our Vision

is to be ranked among the

Global Top 3

machinery makers.

Prologue

Key Figures 04
CHINA 06
EMEA 08
AP/E 10
NA/O 12
CEO's Message 14

Global Synergy Creation

Summary 20
Capturing Global Opportunities 22
China Opportunities 24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27

Business Portfolio

Summary 30
Construction Equipment 34
Machine Tools 40
Engines & Materials 44
Forklifts 48

Sustainability for the Future

Summary 50
Environmental Management : to Lead Green Growth 52
Quality Management and Reliability 54
Research & Development 5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57
Customer Value / Shared Growth 58
Refreshing New Organizational Culture 59
The Value of Our People 60

Financial Stat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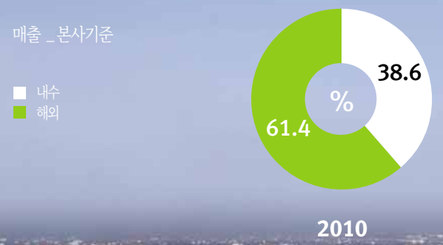
Summary 64
Non-Consolidated 66
Consolidated 76
Independent Auditors' Report 89
Global Network 90

Key Figures

		2010		2009	
주요 경영지표_본사기준	매출액	4,318	3,855	2,663	2,298
	영업이익	543	485	225	194
	경상이익	86	77	-261	-225
	순이익	38	34	-311	-268
	자기자본	1,313	1,173	1,281	1,105
	총자산	4,443	3,967	4,779	4,123
		십억원	백만불	십억원	백만불
주요 경영지표_연결기준	매출액	7,954	7,102	5,538	4,778
	영업이익	455	406	-395	-341
		십억원	백만불	십억원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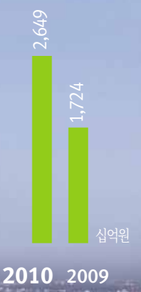
내수 및 수출 비중

매출 _본사기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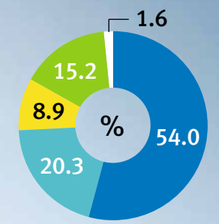
수출



해당 연도 말 최종 원 · 달러 환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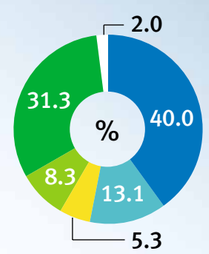
2010 비지니스 그룹별 매출_본사기준

	2010	2009
건설기계	2,332	2,082
공기자동화	877	783
엔진소재	655	585
산업차량	383	342
기타	70	63
총매출액	4,318	3,855
	십억원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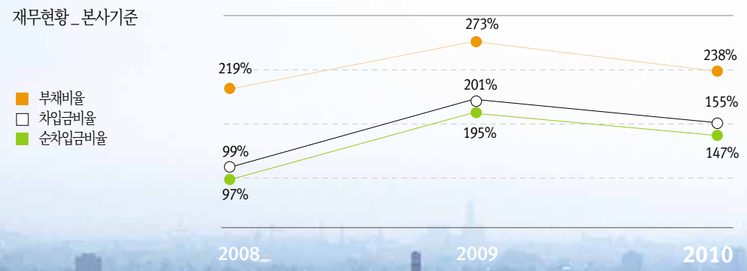


2010 비지니스 그룹별 매출_연결기준

	2010	2009
건설기계	3,182	2,841
공기자동화	1,046	934
엔진소재	656	586
산업차량	420	375
Compact Equipment	2,487	2,221
기타	162	145
총매출액	7,954	7,102
	십억원	백만불



재무현황_본사기준



50%
중국 내 매출 증가율

CHINA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중국시장에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2조 5,7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기계BG와 공기자동화BG가 각 50%, 82% 증가한
매출을 달성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49%
중국시장 내 굴삭기 판매 증가율

두산인프라코어 2010년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전년대비
49% 증가한 2만 1,789대의 사상 최대 판매량 기록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동참한다 "는 기업이념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진 피해 복구 현장에 굴삭기를 긴급 투입
하고 구호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중국 오지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MEA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매출 1조 1,367억원을 달성했다.

건설기계BG는 30%, Compact Equipment는 17%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16%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내 매출 증가율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까지 공작기계 연 2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연매출 2조 1,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Top 3로 도약할 계획이다.

61%

아·태평양, 신흥시장 내 매출 증가율

AP/E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아·태평양 및 신흥 시장에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매출 2조 6,026억원을 달성했다.

건설기계BG와 Compact Equipment, 공기자동화BG가 각 72%, 41%, 17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급성장중인 남미의 브라질에 굴삭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산 1,200대 규모의 이 공장은 2012년 말 완공 예정이며, 2015년까지 생산 Capa.를 1,900대로 늘릴 계획이다.

NA/O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북미 및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매출 1조 6,414억원을 달성했다.

Compact Equipment와 공기자동화BG가 각 35%, 5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끌었다.

34%

북미, 오세아니아 내 매출 증가율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새 출범 이후 인수한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밥캣 브랜드를 십분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CNG 엔진' GK12 가 2010년 6월 미국의 배기규제인 US2010 인증을 획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린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비전은
‘ 글로벌 Top 3 기계회사 ’입니다.
2011년을 비전을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영실적 및 사업성과

지난 2010년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해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 미국 민간소비 부진 및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위기감이 해소되지 못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처럼 어려운 영업환경 아래서도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약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직원 역량 강화, 지속적 운영혁신, 글로벌 M&A 및 시너지 창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배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함으로써, 본사기준으로 매출 4조 3,176억원, 영업이익 5,427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밥캣도 작년 8월부터 EBITDA가 흑자로 돌아서 성장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애정 어린 관심으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신 고객과 주주,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풀어야 할 숙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4.6%보다 낮은 3.8%로 예상됩니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도 8%대를 유지하리라 기대되고 있으나 성장률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도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며, 원화강세가 예상되어 수출이 전체 매출의 61%를 상회하는 당사의 경우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해 매진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Top 3 기계회사 "라는 중장기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금년 연결기준 매출 목표 9.2조원과 영업이익 목표 9,100억원을 기필코 초과 달성함으로써, 2011년을" 글로벌 Top 3 "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1년을" 글로벌 Top 3 도약의 원년 "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 강화하는 한편, 다음 사항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기술과 혁신입니다.

저희처럼 제조업에 기반을 둔 회사는 기술 경쟁력과 운영혁신이 중요합니다. 기술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통 기반기술 분야의 핵심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기술투자 등을 통해 중장기 전사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부품의 품질을 사전 단계에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내실화하고, 생산능력을 재정립하여 중장기 생산성 목표 및 공장 운영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입니다.

신입사원 환영 Family Party

Winning Team Workshop 시상식

둘째, 지속가능경영 체제의 구축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과 점차 강화되고 있는 EHS 환경 - 보건 - 안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 받는 기업, 내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묶어서 '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큰 틀에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상하, 수평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긍정적 에너지 확산에 주력하여 전세계 구성원들의 솔선수범을 이끌어 내는 한편, 업무 선진화에 매진하여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선진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조직문화를 혁신해 신뢰와 자부심, 재미가 넘치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람이 미래다 '라는 두산그룹의 슬로건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람의 성장을 통한 사업의 성장 "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새 출범 이후 매년 평균 17%의 놀라운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사람의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체제로는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심각한 자기반성 아래, 올해를 조직문화 혁신의 해로 선포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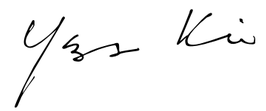
저희 전세계 임직원 모두는 하나된 마음과 지속적인 실천으로 위 세 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글로벌 Top 3 "비전 달성 시기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글로벌 Top 3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일정을 반드시 완수하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을 엄숙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용 성



Global Synergy Creation

Summary 20
Capturing Global Opportunities 22
China Opportunities 24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27

DICE EMEA H.Q.

Summary

두산인프라코어...M&A는 핵심전략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지속 및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일찍부터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선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다.

두산그룹의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는 더욱 확고하다. 두산은 2010년 매출의 약 55%를 해외에서 창출했다. 오는 2015년에는 그룹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은 해외시장 개척 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200대 기업 에 진입한다는 청사진도 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 11월 말 세계 1위의 소형 건설중장비 업체인 미국 잉거솔랜드의 밥캣, 어태치먼트, 포터블파워 등 3개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합병의 성공으로 세계 17위권에서 단숨에 5위권의 건설장비 업체로 부상했다.

잉거솔랜드의 3개 사업부문은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과 브랜드 파워를 자랑한다. 스키드스티어로더, 툴캣 등을 생산하는 밥캣과 중장비에 부착하는 버켓, 팔레이포크 등을 생산하는 어태치먼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포터블파워는 모두 세계 선두권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사업부문은 인수합병 이후 미국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0년 3/4분기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갈수록 성장세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008년에 독일 물류장비 전문업체인 ATL과 노르웨이의 굴절식 덤프트럭 생산업체인 목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의 사업 거점과 기반을 강화해 진정한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역량 강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2006년 중국지주회사인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DICI)를 설립하였고, 2007년에는 중국 휠로더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 업체인 연대유화기계(현 DISD)를 인수했다. DISD는 이듬해 연산 5,000대 규모의 휠로더공장을 준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2009년에는 엔진 합자회사인 서공두산엔진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두산과 서주집단공정기계유한공사는 201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강소성 서주에 엔진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시너지 창출,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새 출범 이후 인수합병한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십분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존의 굴삭기 외에 세계 최고의 소형 건설장비 브랜드인 밥캣 제품을 중국의 시장 환경에 맞게 개량해 투입하는 한편, 대형 휠로더와 굴절식 덤프트럭 등 다양한 고급형 장비들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두산의 미니 휠 굴삭기와 소선회 굴삭기를 밥캣 상표로, 밥캣 영업망을 통해 유럽과 북미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북미,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교차 판매 ’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에도 동반 출품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두산의 중대형 굴삭기와 휠로더, 밥캣의 소형 건설장비, 목시의 굴절식 덤프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 브랜드들을‘ ONE DOOSAN ’이란 깃발 아래 동반 출품하여 글로벌 종합 건설기계 그룹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전세계 고객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후원으로 단기간에 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에서 명문 자동차 경주업체인 조깁스 레이싱의 테크니컬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조깁스 레이싱 창립 때 경주용차의 엔진 및 변속기 개발용으로 머시닝센터 4대를 기증한 이후 지금까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에는 두산그룹 차원에서 영국 브리티시 오픈을 공식 후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사 굴삭기를 골프장 정비용으로 기증했다. 브리티시 오픈은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다.

글로벌 조직문화 정착

두산인프라코어는 소통의 기업문화를 구축해 기존의 성공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 임직원을 하나로 묶는 ONE DOOSAN 기업문화의 틀 속에 이질적 문화와 배경을 다양성으로 수용하여 이를 또 다른 성장의 동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에 회사 대표 웹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한 데 이어,‘ O.N.E. DOOSAN 글로벌 매거진 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발행한 것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노력의 일환이었다.

세계시장의 사업기회

세계경제 회복에 적기 대응

두산그룹은 국내기업 중 가장 글로벌화 된 기업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에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매출 7조 9,541억원과 전년대비 8,499억원 개선된 영업이익 4,546억원을 달성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바 있으며, 2011년에도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와 공기자동화 사업부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에 건설기계 사업부문(Heavy & Compact Equip.)에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무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 1,0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인천 굴삭기공장과 디젤엔진공장, 중국 연대 굴삭기공장의 Capa.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흑자 전환한 밥캣의 성장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중국 강소성 서주공장이 준공돼 건설기계용 디젤엔진이 양산되고, 내년 하반기에 브라질 굴삭기공장이 완공되면 생산경쟁력 확보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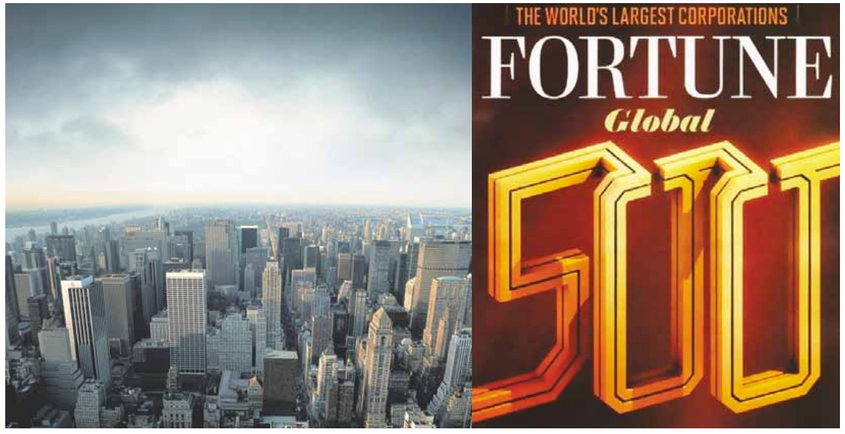
공기자동화BG도 연결 기준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한 1조 846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다. 2010년에 1만대를 넘어선 생산 Capa.도 올해 1만 3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의 공작기계 수요도 회복세로 돌아선 데 따른 조치다.

2015년 글로벌 Top 3‥기회요인 활용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을 위기 극복 후 도약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 이를 위해 원가경쟁력 확보 및 고객 인지품질 향상, 선진수준의 기술력 및 제품 라인업 확보, 화합과 상생의 기업문화 구축 등에 주력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영환경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차별화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 활동에 매진해서 2015년 매출 17조원 달성을 통한‘ 세계 기계산업분야 Top 3 ’를 목표로 뛰고 있다. 특히 자회사인 밥캣이 미국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제품 가격 현실화에 힘입어 3분기에 EBITDA가 흑자로 돌아서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에 힘을 보탰다. 이런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뛰고 있는 글로벌 무대의 경영환경은 위험요소보다는 기회요소가 우위에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당국이 질적성장(내수진작)을 선언한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건설장비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대형 국책사업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견실한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런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 200대 기업...두산의 꿈

지난 2009년 포춘 500대 기업에 처음 진입한 두산은 2020년대에는 200대 기업에 드는 것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 선택과 집중 ’해외시장 공략

두산그룹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 등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소비재 기업에서 산업재와 중공업을 주축으로 한 ISB 기업으로 변화한 두산의 성과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밥캣, 밥콕 등 해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사업 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두산인프라코어는 틈새시장 및 성장기회가 있는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DII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성장 유망사업 확대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볼보 건설기계 CEO 출신인 안토니 헬샴 사장을 영입했다. 헬샴 사장은 볼보그룹 건설기계 분야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전문가다.

두산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친환경(Ecology), 안전(Safety), 사용성(Usability), 효율성(Efficiency) 등 4가지를 갖춘‘ Eco Transfomer ’를 목표로 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미래형 굴삭기는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됐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2009 레드닷 디자인상(Reddot Design Award) ’에서 최우수 작품(Best of Best)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시장의 기회

바우마 차이나 2010 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11월 23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바우마 차이나 2010 ’에 총 35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출품했다.

중국 시장은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성장을 거듭하는 거대 시장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대규모 SOC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바로 이런 중국 땅에서 건설기계와 공작기계, 엔진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신화를 써 낸 대표 기업이다. 최근 들어 증권가 일각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내수 테마주 ’로 분류될 정도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은 중국 경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성공비결

기업들은 통상 중국 현지 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런 관행과는 달리, 1994년 당시 100% 단독 투자라는 공격적인 시장 진입 방법을 택했다. 중국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발빠른 의사결정과 대응, 공격적인 마케팅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두산공정기계(DICC)는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연구, 생산 및 영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었다. 결국 두산의 판단은 옳았고,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시작하자 두산공정기계는 중국 굴삭기시장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가속할 수 있었다.

철저한 현지화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성공 비결로 평가 받고 있다. 두산공정기계는 중국기업다운 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했다. 기존 제품의 수입판매에 급급했던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두산공정기계는 중국시장에 특화된 중국형 장비들을 앞세워 중국시장을 공략했다.

하루 20시간 이상 연속 작업을 해야 하는 중국의 작업환경을 고려해, 비핵심 기능 관련 고급 옵션사양을 제거해 장비 가격을 낮추면서도 중요 제품의 내구성을 대폭 강화해 장시간의 연속 사용에도 고장이 없는 중국형 굴삭기를 공급했다.

중국의 다양한 지형조건을 고려해 공기가 희박한 고원지역에 특화된 굴삭기와 겨울철 혹한이 맹위를 떨치는 동북지역에 특화된 굴삭기 등 현지화된 제품들도 선보였다.

또한 현지인 중심의 생산, 영업 조직도 구축했다. 중국 내 주요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업무 및 교육 기회를 부여해 핵심인재로 육성했다. 이들은 현재 주요 부서의 관리자로 성장하고 있다.

탄탄한 영업망과 A/S체제도 장점으로 꼽힌다. 두산공정기계는 신속한 영업망 구축 및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영업지사를 두는 동시에 중국 각지에서 일선 고객들을 상대하는 대리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고객 요구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현장 밀착형 영업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A/S도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두산공정기계는 중국 전역에 370여 곳의 영업 및 A/S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1-2-1 ’ 전략, 즉 문제 발견 시 1시간 내에 회신을 주고, 2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 1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서비스 실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두산공정기계는‘ SAN(Service Assurance Network) 150 ’전략도 수행하고 있다. SAN 150은 A/S 요구 장비가 반경 150㎞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A/S센터가 24시간 내에 A/S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두산은 앞으로 거리를 반경 100㎞로 줄이고 시간도 24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 엑스포 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 중국 상하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에 참가해 중국 내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굴삭기 분야 압도적 1위 목표

중국의 굴삭기시장은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다. 2010년에는 연간 수요가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산공정기계는 2010년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전년대비 49% 늘어난 2만 1,789대의 사상 최대 판매량을 올리며 연간 판매 2만대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두산공정기계는 중형급 굴삭기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 왔다. 하지만 중국 굴삭기시장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굴삭기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중대형 장비의 비중이 최근 58%대로 축소되는 대신 소형 장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두산공정기계는 이런 변화에 맞춰 소형 굴삭기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굴삭기 전 품목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장비의 경우는 원가 경쟁력, 대형 장비의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소형 굴삭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주공장이 2011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연간 9,800대의 소형 굴삭기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게다가 2단계 설비 확장을 통해 Capa.를 1만 3,600대 규모로 확대할 것이고, 기존의 연대 굴삭기공장은 중대형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전문화 하여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Capa.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두산공정기계는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두산공정기계는‘ 중국 시장 브랜드 고객만족도 조사 조직위원회 에서 실시한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중국 내 굴삭기 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위원회는 중국 인민일보 시장정보센터와 중국브랜드협회, 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조사기관이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공개 투표와 전화 설문을 통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신문기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200여 명의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치게 된다. 두산공정기계는 67,202점을 획득해 2위인 코마츠를 큰 점수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두산공정기계는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3년부터 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건설기계 분야 1위 목표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건설기계 분야 대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중국 굴삭기시장에서 거둔 비약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집중 발굴, 육성해 중국 최고의 건설기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두산-몽따베르 유압브레이커 중국에 1천호기 판매

2010년 8월, 두산-몽따베르는 중국에 첫 브레이커 제품을 수출한지 1년 만에 판매 1,000대를 돌파했다.

이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생산설비 확충, 품질 개선, 히트 굴삭기 개발 및 휠로더 사업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형 히트 굴삭기 개발을 위해 한국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사업장에서 쌓은 R&D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마케팅 인력을 보강해 대형 고객과 VIP 고객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고객관리(CRM)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대리상의 사업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44%를 점하고 있는 휠로더 분야도 중국 내 건설기계 분야 1위 달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 현지 휠로더 업체(현 DISD)를 인수하여 2008년 말 연산 8,000대 규모의 휠로더공장을 완공한 바 있다. DISD는 2010년 전년대비 4배 수준인 3,198대의 판매량으로 폭풍 성장을 실현했다. 기존의 중국형 휠로더 외에, 2010년 고급형 휠로더를 새로 선보여 성공을 거둔 DISD는 앞으로 생산기종을 다양화하고 생산설비를 증설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2009년 중국 서공그룹과 디젤엔진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서주에 디젤엔진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서주공장은 2011년 하반기 중 완공돼 6 ℓ와 8 ℓ급 건설기계용 디젤엔진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2018년까지 차량용 및 건설기계용 엔진 연 1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통해 세계 10대 디젤엔진 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랜드 고급화

중국 건설기계시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로컬 업체들 간의 각축장으로 변했으며, 고객들의 요구수준도 갈수록 높아져 제품의 편의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중시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시장에서 브랜드 고급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의 두산 브랜드와 최근 M&A한 브랜드, 즉 굴삭기, 휠로더 등의 두산 제품과 밥캣의 소형 장비, 목시의 굴절식 덤프트럭(ADT) 등 다양한 건설장비를 중국 고객들에게 함께 선보이고 있다. 한층 강화된 내구성에 유럽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굴삭기와 휠로더 고급형 모델을 지속 출시하는 것 외에, 두산 브랜드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밥캣과 목시 브랜드를 각종 전시회에 동반 출품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기회

브라질 굴삭기 공장 신설

국내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브라질에 굴삭기 공장을 신규 건설을 진행중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브라질 굴삭기공장 건설로 중남미시장 선점

두산인프라코어는 중남미와 인도, 러시아, 중동 등의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마케팅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브라질 현지 굴삭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현지 굴삭기공장이 들어설 곳은 상파울루주 아메리카나시 상제롬 산업단지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만㎡의 용지에 연산 1,200대 규모의 굴삭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120㎞ 떨어진 이 공장은 오는 6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국과 중국, 북미, 유럽, 중남미 등으로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산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도시 개발과 맞물려 건설장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브라질은 인구 1억 9,300만명으로 세계 5위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38배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은 1조 5,315억 달러로 세계 8위이고,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시장과 CIS,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부상중인 브라질 시장에 대한 선점은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증권가 시선..중남미 시장 진출 긍정적

증권가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의 브라질 진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하석원 연구원은“ 중남미 건설중장비 시장은 향후 2015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전망 ”이라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중남미 매출 비중은 대략 현재 3% 내외에서 2013년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중국 건설중장비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공작기계 수익성의 빠른 회복, 밥캣 실적 개선, 중남미와 인도 등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 등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포지셔닝이 확고해질 것 ”이라며“ 향후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를 감안할 경우,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밝게 전망했다.

Business Portfolio

Summary 30
Construction Equipment 34
Machine Tools 40
Engines & Materials 44
Forklifts 48

Summary

두산인프라코어가 2010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은 건설기계가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과 CIS,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급성장을 거둔데다 밥캣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공작기계 매출이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본사기준으로 매출 4조 3,176억원, 영업이익 5,4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액은 62%, 영업이익은 141% 대폭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2.6%를 나타냈다.

건설기계BG는 본사기준 매출 2조 3,321억원과 영업이익 4,41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6%, 101% 증가했다. 공기자동화BG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매출 8,77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35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밥캣도 주력시장 성장, 시장점유율 확대, 제품 가격 현실화 등에 힘입어 매출 22억 2,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8% 성장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전년대비 49% 증가한 2만 1,789대의 두산 굴삭기를 판매했으며, 두산 휠로더도 제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연간 총 3,198대를 판매해 전년대비 254% 급신장했다.

또 CIS, 중남미, 인도 등 신흥시장이 건설기계BG의 주요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신흥시장 매출이 4,721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대폭 증가했으며, 건설기계BG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신흥시장 비중도 15%에서 20%로 확대됐다. 특히 CIS에서의 두산 굴삭기 점유율은 2009년 7.2%에서 지난해 15.6%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공기자동화BG도 내수와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434대에 불과했던 월 평균 수주가 지난해에는 130% 증가한 1,000여 대 수준에 달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경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매출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본사기준 해외매출 비중은 2010년에 61.4%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 건설기계공장 확대, 밥캣 인수 등으로 사업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회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딜러 네트워크 역시 약 4,000개 이상으로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 4월 두산인프라코어는 산업차량BG를 SC PE(Standard Chartered Private Equity)와 DIP홀딩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인수기업은 DIP홀딩스와 SC제일은행의 사모펀드인 SC PE가 51대 49의 비율로 출자해 공동 설립하는 회사로 기존 임직원들도 100% 고용이 보장된다.

건설기계와 공기자동화 사업부문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중국 현지 생산법인인 두산공정기계(DICC) 지분 20% 매각대금을 보태 밥캣 인수 관련 일부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한편, 브라질 굴삭기공장 건설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BG

건설기계BG는 본사기준 매출 2조 3,321억원과 영업이익 4,41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6%, 101% 증가했다.

건설기계 시장은 2010년에 중국과 신흥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침체중이던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기계BG는 홈마켓인 한국시장의 성장과 세계 건설기계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중국시장의 높은 성장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뤄 건설기계 Top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볼보를 세계 3위의 건설기계 업체로 이끈 안토니 헬샴 사장을 2010년에 영입, Top-tier 수준의 리더쉽 역량을 확보했다. 헬샴 사장의 영입과 동시에 전사적인 품질 개선 활동인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착수해 제품 품질의 근원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홈마켓인 한국시장에서 딜러의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하여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신흥시장에서는 인도형 장비 개발, 남미와 CIS의 딜러망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선두를 고수하기 위해 전 Value Chain에 걸친 역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건설기계BG는 2010년도의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산업 글로벌 Top 3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기계BG는 2010년에 착수한 TQM 활동의 전세계 사업장으로의 확산과 연구개발 능력의 개선 및 확충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 소주공장의 양산 개시 및 군산공장의 가동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품질, 제품개발 역량, 딜러역량 강화 등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 활동을 지속하여 선두 위치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적으로 After Market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건설기계BG의 수익구조를 보다 안정화해 나갈 것이다.

Compact Equipment (DII)

DII의 밥캣과 포터블파워는 오랜 시간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브랜드다. 특히 밥캣은 Compact Equipment 분야, 포터블파워는 압축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들이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딜러 매니지먼트 능력과 엔지니어링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화된 딜러 관리 및 지원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역을 커버하는 강력한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엔지니어링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스키드스티어로더를 창조,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이들은 선진화된 NPD프로세스(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DII와 건설기계BG는 최근 조직을 통합하여 사업구조를 사업부체제에서 China,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NA/O(North America and Oceania), AP & Emerging(Asia Pacific and Emerging Market) 등의 지역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Tony 사장을 비롯한 제 분야별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여 글로벌 경영역량을 높였고, 세계경제 침체기에 체질 개선에 매진하여 리바운딩에 대비했다. 2009년에는 비즈마크(Bismarck) 공장을 그위너(Gwinner) 공장으로 통폐합하고 북미와 EMEA의 직영스토어 (COS)를 매각했으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제품 가격 할인폭을 축소시키는 등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 로더의 성능을 크게 개선한 M-series 신제품을 출시했다. DII는 플랫폼을 통합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했으며,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공기자동화 BG

2010년 공기자동화BG는 내수 및 중국 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111% 성장한 매출 8,773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 35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기자동화BG는 2010년 비용절감과 재고감축, 운영혁신 등의 경영체질 강화 활동에 매진하며 영업망 및 영업역량 강화, 고객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SIMTOS 2010 ’과‘ IMTS 2010 ’등의 국내외 전시회에 첨단 신제품을 대거 출품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에는 중국 및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선진시장의 공작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및 신흥시장에서 차별적 영업전략을 수행하고, 선진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비한 영업 네트워크 확대, 지역별 특화된 영업전략 수행 및 고객 니즈에 맞춘 신기종 개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Global Top Tier의 경쟁력 확보 및 전방위 고객 근접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제8회 DIMF 2011 ’전시회를 비롯하여 INTERMOLD, CIMT, EMO 등의 국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력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대형 및 복합가공, 정밀가공 제품 등 신제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의료, 에너지, IT, 항공/군수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Market Sensing 체계 구축 및 실행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객 및 제품 지원기능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산업차량 BG

산업차량BG는 2010년에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3,8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0년 시장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2009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으나, 전체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산업차량BG의 주력시장인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익성이 낮은 신흥시장 위주로 성장했다.

이에 산업차량BG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구축에 역량을 집중했다. 초대형 지게차를 비롯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수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수익 시장 중심의 판매전략을 실행했다. 또한 After Market 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비용구조 개선 활동 등 Restructuring 활동에 매진했다.

2011년에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지만, 전년과 유사하게 선진시장보다는 신흥시장 위주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산업차량BG는 시장의 성장에 대비한 성장동력의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딜러 네트워크를 개선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환경규제 대응 차량 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해 선진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After Market 사업의 비중 확대, 차별화된 지역별 매출정책 시행, 품질 경쟁력 강화 및 비용구조 개선 등의 내부 Restructuring 활동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엔진·소재 BG

엔진·소재BG는 2010년에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6,55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0년 엔진·소재BG는 주거래처인 대우버스 및 타타상용차의 판매채널인 대우자판의 부도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해외 딜러 및 OEM 물량 추가 확보, 신시장 개척활동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시현했다. 또한 2010년은 중국 서공 두산엔진유한공사의 사업 안정화, 1,500마력 차기전차엔진 개발, 건설기계용 중형 Tier 4 엔진 개발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다.

현재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공 두산엔진유한공사는 2011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시험 생산 및 탑재개발 평가가 진행중이고, 1,500마력 엔진 개발은 전차 탑재용 시제 엔진 공급을 완료하여 성능 및 내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엔진·소재BG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등에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1년도는 서공두산엔진과 미국 CNG엔진 등 신규사업 분야의 양산 개시 및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대형발전기 엔진과 천연가스 엔진 등 고부가가치 엔진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제품 및 품질 경쟁력, Operation Excellence 확보에 매진할 예정이다.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 Tools

Engines & Materials

Forklifts

Main Products

Excavators / Wheel loaders / Skid-steer loaders / Compact loaders / Mini-excavators / Telescopic handlers / Air compressors / Articulated dump trucks

(연결기준, 단위 : 억원)

건설기계BG 매출액 추이

Compact Equipment
매출액 추이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두산의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 사업인 ISB (Infra - structure Support Business, 인프라지원사업)를 선도하는 핵심사업부문이다. 건설기계 BG는 1985년 굴삭기 독자모델 개발 이후, 사업영역과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여 국내 건설기계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속 유지함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성가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소형 건설장비 브랜드인 밥캣을 비롯해 어태치먼트, 포터블파워, 두산 목시 등을 포함해 글로벌 사업체제를 확대중에 있다.

건설기계BG

DX굴삭기, DL휠로더, 소선회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한국과 중국, 벨기에에 갖추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판매법인과 지사,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누적 굴삭기 판매대수 1위,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밥캣 (Bobcat)

미국 노스다코다주에 본사를 둔 50여 년 전통의 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분야 세계 최고의 브랜드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에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고 스키드스티어로더, 소형 굴삭기, 미니 트랙 로더, 신축형 툴 캐리어, 소형 트랙 로더 등의 제품을 생산, 세계의 건설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포터블파워 (Portable Power)

136년 전통의 포터블파워는 공기압축기, 발전기, 조명시스템 등 품질과 신뢰성, 내구성이 뛰어난 다양한 유틸리티 제품을 생산, 건설과 광업 분야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특히 마운트 러시모어, 후버 댐, 조지 댐, 채널 터널 등 세계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현재 공기압축기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태치먼트 (Attachments)

어태치먼트는 몽따베르(Montabert), 트라맥(Tramac), 기스(Geith) 등 3개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몽따베르는 유압식 록 브레이커와 유압식 록 드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통한다. 몽따베르 제품은 굴삭기와 로더 등의 중장비에 부착되어 광산, 채석 작업은 물론, 건설 및 토목 공사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트라맥은 유압 파쇄기와 철거 공구, 진동 컴팩터, 절단 헤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기스는 건설, 굴착, 철거, 고철 취급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용 어태치먼트를 공급하고 있다.

두산목시 (Doosan Moxy)

노르웨이 몰데(Molde)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산목시는 23~46톤급의 굴절식 덤프트럭 (Articulated Dump Truck)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판매법인과 노르웨이 R&D센터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주력제품인 대형 굴절식 덤프트럭은 대형 광산 개발과 험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1. 두산 굴삭기 DX225LC
2. 밥캣 스키드스티어로더 S160
3. 포터블파워 공기압축기 XP375WJD
4. 기스 버킷과 몽따베르 유압식 록 브레이커 V45
5. 두산목시 굴절식 덤프트럭 MT41

1.

2.

3.

4.

5.

건설기계 업황 및 중기 중점 추진 전략

2010년 상반기에 중국과 한국, 신흥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북미, 유럽, 아프리카 시장은 회복이 지연되었다. 하반기로 접어 들면서 중국, 한국 및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북미와 유럽 지역은 더블딥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다소 회복되기 시작했다. 굴삭기의 경우 2010년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64% 성장하면서 지난 2007년의 정점(Peak)을 초과했다. 국내 건설기계시장은 4대강 프로젝트에 따른 공사가 본격 착공됨에 따라 중대형 건설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건설기계BG는 신기종 도입, 영업체질 개선, Product Support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마켓 리더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의 경쟁우위를 활용해 회사 수익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 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업망 재정비, Aftermarket 사업역량 제고, 건설중장비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중국형 굴삭기 및 휠로더 제품을 추가로 출시하는 한편, 딜러역량과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중국 굴삭기시장 선두주자에서 건설기계시장 1위 업체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량 증대를 통해 급증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Top 경쟁사 수준의 품질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BG와 DII(밥캣, 포터블파워)의 조직을 통합해 전세계 4개 지역(China/Europe, the Middle East, Africa/ Asia Pacific, Emerging/ North America, Oceania)별 조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Top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며 시장의 니즈를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DII는 Compact Equipment의 경쟁력과 딜러 매니지먼트 스킬을 활용하여 북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Heavy Construction Equipment의 성장을 견인하고, NPD와 딜러 매니지먼트 스킬 등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시너지 창출을 가속해 두산인프라코어의 비전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스키드스티어로더는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미니굴삭기(MEX)도 조만간 세계 1위로 도약해 Compact 분야 세계 1위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것이며, 북미와 유럽 지역의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분야에서도 선두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 한국, 중국, 브라질 현지 생산공장 추가 건설

두산인프라코어는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한다는 전략 아래, 총 1,146억원을 투자해 2010년 10월 군산공장을 완공했다. 군산산업단지 내 18만평 부지에 들어선 이 공장은 건설기계BG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굴삭기 6기종과 휠로더 6기종 등 대형장비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 강소성 소주공장도 2011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9,800대의 소형 굴삭기 공급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장 준공 후 설비 확장을 통해 생산규모를 2015년 기준 연 1만 3,6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남미 브라질에도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연산 1,200대 규모의 굴삭기 생산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공장은 상파울루주 아메리카나시 상제롬 산업단지 5만㎡ 용지에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된다.

중국 소주공장과 브라질공장이 완공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 중국, 미국, 벨기에,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어 2015년 건설기계 분야' 글로벌 Top 3 '의 목표 달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마 2010 국제건설중장비전시회 통합 전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 바우마 2010 '는 두산 건설기계 브랜드간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

군산 건설기계공장 준공

굴삭기와 휠로더 등 대형 건설기계를 연간 4천대 이상 생산하게 될 군산공장이 2010년 10월 14일 준공됐다.

Construction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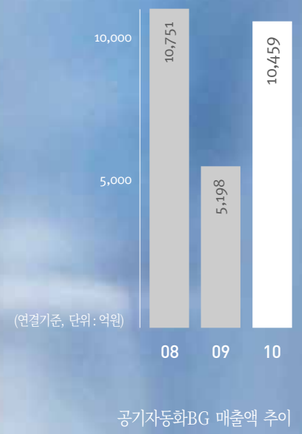
Machine Tools

Engines & Materials

Forklifts

Main Products

Turning centers / Machining centers / Ultra-precision, non-spherical surface cutters / Ultra-precision freeform surface cutting machines / Numerically-controlled boring machines / Electric discharge cutters / 5-axis machining center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 Processing systems / Assembly systems



공기자동화BG 매출액 추이

공기자동화BG

공기자동화BG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Top Class의 공작기계 회사이다. 1976년 사업개시 이후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1980년 터닝센터 개발에 성공한 이후 다양한 초정밀 공작기계 핵심제품을 개발했다. 현재 세계 5대 공작기계(TC/MC 분야) 회사로 성장한 두산공작기계는 ISO9001, ISO 14001, CE, UL, EMI, EMC 등 각종 품질/환경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업황

2010년도 공작기계 산업은 지역별 성장속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 시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시장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선진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하반기부터 선진시장도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금융 불안요소의 약화, 실업률 감소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에 속도를 냈다.

공기자동화BG는 판매가 회복 지연 및 원자재가 인상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중국을 중심으로 중소형 제품 매출 확대, 타겟 마케팅 활동의 추진으로 2008년 정점(Peak) 때의 매출을 회복했다. 내수시장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TC 및 Tapping기를 중심으로 대응했다. 미주시장의 경우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 Mid/Low end 제품 중심으로 마케팅을 극대화했고, 남미시장에서는 타겟 마케팅을 강화해 매출 확대를 도모했다.

중국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 시장 니즈를 반영한 중국형 신제품의 적기 출시, 시스템 엔지니어링 지원 강화를 통한 턴키 프로젝트 수주 확대, 신규 대리상 발굴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강화 등의 노력으로 현지 생산공장(DIY)의 매출이 급증했다.

중기 중점 추진 전략

공기자동화BG는 대형, 고정밀 제품군을 비롯한 High end 중심의 지속적인 라인업 확대 및 신규 제품군 개발 확대를 통해 Full Line-up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 제품군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또 선진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후발업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핵심요소기술 확보 및 차별적 시스템 엔지니어링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자동화BG는 시장분석을 통해 수립한 차별화된 지역별 판매전략을 연구개발, Product support 등과 연계해 기존의 자동차 산업 중심에서 탈피, IT, 에너지, 항공,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딜러 확보를 통한 판매 네트워크 강화로 고객 근접 지원을 강화하고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 매출과 이익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IMTS 전시회 참가...미주시장 공략 가속

공기자동화BG는 2015년까지 연 2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연매출 2조 1,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Top 메이커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공기자동화BG는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딜러-고객 ’을 연계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영업조직의 전진 배치, 대고객 2차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북미시장에서의 수주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기자동화BG는 2010년 9월, 미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IMTS 2010 ’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 차세대 기종인 PUMA New Frame 시리즈를 비롯해 미주지역 전략 신기종 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 등 21개 모델을 전시해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였다.

무인가공 머시닝센터 HP5100LPS와 항공엔진과 오일/가스, 조선산업 등의 대형 부품 가공에 적합한 터닝센터 VTS1214, 기존 모델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터닝센터 주력모델 PUMA2100/2600, 5축 정밀가공용 VC630-5AX, 강력한 절삭기능을 실현한 Mynx7500/50, 그리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펼쳐 온‘ 오토메이션 솔루션 ’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호평을 이끌어 냈다.

공작기계전시회 IMTS 2010 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IMTS 2010에서 차세대 기종인 PUMA New Frame 시리즈를 비롯해 총 21개 모델을 선보였다.

금형가공기 오픈하우스 개최

공기자동화BG는 2010년 5월 7일 창원 공작기계 공장에서 인하우스 전시회인 금형가공기 오픈하우스를 개최해 두산 공작기계의 탁월한 기술력을 적극 홍보했다.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 Tools
Engines & Materials
Forklifts

Main Products
Diesel engines for commercial vehicles · construction equip. · generators and ships / Various types of gas engines / Castings for vehicle engines / Materials for hydraulic parts

엔진.소재BG 매출액 추이

엔진 · 소재BG

1958년 디젤엔진 사업을 시작한 엔진·소재BG는 엔진 조립공장과 소재공장, 부품 및 가공공장 등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버스/트럭용, 산업용 엔진 등 다양한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1975년에 대단위 디젤엔진공장을 준공하여 양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85년 독자모델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2007년에는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는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Euro-4엔진 개발에 성공해 세계적인 품질 및 기술 수준을 인정받았다.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적용중인 미국에 CNG엔진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10년 US2010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2011년 하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중국 서주에 연산 5만대 규모의 디젤엔진 합작공장을 건설중에 있다.

업황 및 중기 중점 추진 전략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북미,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투자심리 호전, 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의 수요 회복, 대형고객의 추가 발굴 및 신흥시장에서의 Captive 고객 확보 등 긍정적인 기회요인들도 적지 않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간접 수혜, 즉 건설경기 회복 및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친환경정책에 따른 천연가스 엔진과 저공해 엔진 공급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중점 추진 전략

엔진·소재BG는 기술과 품질을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엔진시장은 선진업체와 동일한 시점에 선진국 배기규제에 대응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가 엔진사업의 생존 및 성장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엔진·소재BG는 현재까지 배기규제 대응 가능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품질 또한 글로벌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중형 Tier-4 Final엔진 개발 및 서공두산의 사업 안정화, 1,500마력 차기전차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서주 디젤엔진공장 건설

엔진·소재BG는 2010년 4월 중국 강소성 서주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디젤엔진 생산공장(서공두산엔진유한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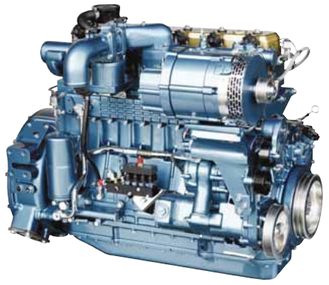
서공두산엔진유한공사는 오는 2011년 7월부터 6ℓ와 8ℓ급 건설기계용 디젤엔진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차량용 디젤엔진 생산을 시작하고, 2018년까지 연간 총 1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CNG엔진, US2010 인증 획득

선진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한 CNG (Compressed Natural Gas)엔진‘ GK12 ’가 2010년 6월 미국 배기규제인 US2010 인증을 획득했다. GK12엔진은 세계 최초로 CNG엔진에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저감) 기술을 채택해 PM (Particulate Matter : 입자상물질) 및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줄이면서도 내구 신뢰성 및 시스템 단순화에 따른 탑재, A/S편리성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엔진·소재BG는 세계에서 배기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지역의 버스에 GK12 엔진 탑재가 가능하게 되었고, 커민스사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차량용 GAS엔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 CNG엔진, US2010 인증 획득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진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한 CNG엔진 (Compressed Natural Gas)이 2010년 6월 미국 배기규제인 US2010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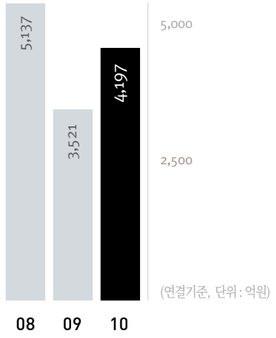


중국 서주 디젤엔진공장 건설
엔진·소재BG는 2010년 4월 16일 디젤엔진 생산공장인 ‘ 서공두산엔진 서주공장 ’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Construction Equipment
Machine Tools
Engines & Materials
Forklifts

Main Products
Diesel Engine - powered forklifts /
Gasoline & LPG Engine - powered forklifts /
Electric - powered forklifts /
Warehouse equipment

산업차량BG



엔진 · 소재BG 매출액 추이

1967년 지게차 사업에 참여한 산업차량BG는 1993년 지게차 독자모델을 개발한 이래, 엔진, 트랜스미션 등의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했다. 현재 연간 3만 5천대 규모의 국내외 생산기지에서 150여 기종의 다양한 지게차를 생산하고 있다.

업황 및 중기 중점 추진 전략

지게차는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수요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및 물류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 폭이 크며, 국내시장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경제위기로 2008년 4분기 이후 크게 침체되었던 세계 지게차시장은 2010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시장은 2010년 상반기에 전년도 연간 수준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로 급성장했다.

산업차량BG는 2007년 출시한 Pro 5 기종의 판촉을 강화하며 제품 포지셔닝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미국시장의 경우 제품 품질 향상 및 두산 브랜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입지를 높였고, 신흥시장에서는 지속적인 판매망 강화 및 대형 수주물량 확보 등으로 매출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안전기능을 강화한 제품과 대형기종을 새로 도입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산업차량BG는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성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중대형 신모델인 7톤, 16톤급 모델을 출시하는 한편, 그동안 수입장비에 의존하던 18톤급 초대형 지게차를 독자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차량BG는 재료비와 생산실패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수익성 중심 판매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유럽과 북미 시장의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부품사업의 시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북미 부품사업 경쟁력 방안을 지속 실행하고 이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IMHX 2010 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IMHX 2010에서 지게차, 소선회 굴삭기, 발캣 텔레핸들러, 선박엔진을 공동 전시했다.

Sustainability for the Future

Summary 50
Environmental Management : to Lead Green Growth 52
Quality Management and Reliability 54
Research & Development 5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57
Customer Value / Shared Growth 58
Refreshing New Organizational Culture 59
The Value of Our People 60

새로운 100년 경영을 향하여

최근' 지속가능경영 ' 이 큰 화두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평균 20년 정도라고 한다. 대내외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장기적 비전은 낙관적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다 전사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6대 추진 과제와 7대 핵심 가치를 정립했다. 6대 추진 과제로는 △사회적책임 인식 및 수행 △파트너와의 동반성장 △친환경 기술, 제품, 제조 △고객가치의 지속적 창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인재 확보 및 양성을, 7대 핵심 가치로는 △사회공헌 및 기업윤리 △동반성장 △고객가치 △친환경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인재양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조직을 구성해 추진전략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해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

두산희망소학교

환경경영 : 녹색성장 선도

두산인프라코어는 1996년 환경방침 수립 이후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 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OHSAS 18001 / KOSHA 18001)을 구축, 적용하여 전 세계 품질, 환경 관련 각종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출하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 재활용 등 제품 설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저탄소 녹색경영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Global Leading Green Company ’를 환경 비전으로 정립해, 친환경 제품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제품 개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도출, 실행하고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린엔진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저연비 청정엔진인 Euro-5 엔진 및 녹색산업용 공작기계 출시 등 친환경 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Euro-5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CNG엔진 개발 성공은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부터 적용될 유럽과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굴삭기와 하이브리드 굴삭기를 조기에 개발해 세계 기계산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개발, 테스트 중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굴삭기는 기존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 줄이면서 연비를 35% 가량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굴삭기는 이르면 내년부터 1단계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또 다른 도전은 무인 굴삭기 개발이다. 이는 무선 원격조정이 가능한 굴삭기로, 주로 지뢰지역과 오염지역, 경사진 비탈 등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막 및 고지대 산악지역과 같은 극한지역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기자동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풍력발전기용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대형 터닝센터와 보링머신, 그리고 절삭유 사용량을 절감한 친환경 금형가공기 등을 개발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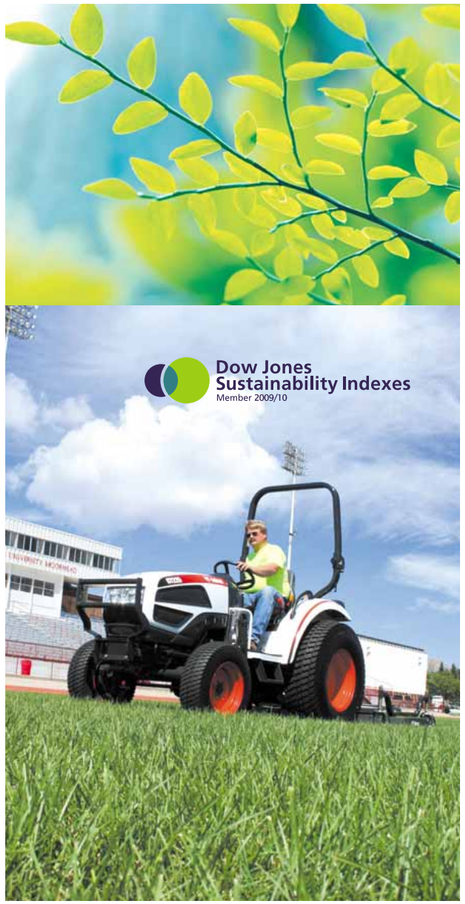
대형 터닝센터(VTS1620M)는 풍력발전기와 가스전 개발 등의 에너지산업을 겨냥해 개발한, 대형 주축과 프레임 가공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공영역은 최대 직경 2,000mm, 높이 1,600mm이며 작업 성능도 기존 제품에 비해 20% 이상 향상됐다.

대형 수치제어 보링머신(DBC130L)은 풍력 발전기용 부품과 같은 고하중의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로 길이 2,500mm, 무게 20톤 규모의 대형 중량물의 미세가공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폐절삭유 배출을 극소화 한 친환경 금형가공기(NX5000/6500)는 세미드라이(MQL : Minimum Quantity Lubrication) 가공장치를 장착해 극미량의 미세(1.0㎛ 이하) 절삭액을 고압 공기와 혼합해 가공 부위에 분사함으로써, 폐수 및 폐유 발생을 극도로 줄인 환경친화 공작기계다.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산업용 생산재 및 서비스 부문 편입

2010년 9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Korea (DJSI Korea)의 산업용 생산재 및 서비스(Industrial Goods & Services) 부문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엔진·소재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0월 Euro-5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과 CNG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했다. Euro-5 디젤엔진은 Euro-4 디젤엔진 개발을 통해 축적한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환원 촉매저감) 기술을 적용했고, Euro-5 CNG엔진은 실린더 헤드 개선 개발 및 촉매효율 최적화 기술을 이용했다. Euro-5 엔진은 고출력, 저연비는 물론, 배출가스를 최소화 한 저공해 청정엔진이다. 또한 차기 배기규제인 Tier-4 final 대응형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청정엔진 개발에 앞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진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압축천연가스(CNG)엔진은 미국 배기규제인 US2010 인증을 획득했다.‘ GK12 ’엔진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줄이면서도 경쟁사 엔진에 비해 연비가 15%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에서 배기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미국 캘리포니아지역 버스에 GK12 엔진 탑재가 가능하게 됐으며, 커민스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차량용 GAS엔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차량

두산인프라코어는 하이브리드 지게차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2010년 9월의 한국 건설기계전과 11월의 영국 IMHX (International material Handling Exhibition) 전시회에 전동식 하이브리드 지게차용 Super EV Prototype을 출품했다. 슈퍼 EV는 기존의 배터리 외에 Ultra-capacitor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에너지 저장장치다. 이는 기존 전동식 지게차가 배터리 사용시간에 따라 출력이 감소하는 단점을 보완한 장치로, 지게차 가동시간 내내 동일한 출력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품질경영 및 신뢰성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품질 제품을 적기에 개발, 공급하기 위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뢰성평가센터의 각종 기능시험과 신뢰성 평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이 감동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ISO 9001 QM(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엄격한 품질경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혁신 활동 및 부품품질 지도 개선 활동 추진, 품질보증 인프라 및 제품 신뢰성 제고 활동 강화, 품질경영 시스템 Audit 활동,' 품질 아카데미 '상시 운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품질혁신 활동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사업장 및 주요 협력회사 모두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 외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혁신, 생산혁신, 구매혁신, 설계혁신 등 경영 전분야에 걸친 운영혁신을 추진하며 성과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고객 지향적 사고 및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하고 있다.

신뢰성 평가센터
The Center for Product Reliability

" 신뢰성평가센터는 품질경쟁력의 산실이자 글로벌 성장을 가속하는 원동력이다. "

두산인프라코어는 주력제품의 개발 단계별 신뢰성을 확보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첨단 장비를 구비한 총 13개 시험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뢰성평가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신뢰성평가센터는 대형 무향실과 진동 시험실을 완비하여 완성차량의 소음수준과 각종 회전체의 진동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등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내환경실에서 세계 각지의 극한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재현하여 각종 중장비의 내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속수명 시험방법을 활용하여 굴삭기, 휠로더의 Front, Frame 등 주요 용접 구조물 수명 예측 및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소형 등의 동력전달 시험기를 갖추고 지게차, 휠로더의 트랜스미션, 액슬, 감속기 등 동력전달 부품에 대한 내구성 및 유압펌프, 유압모터, 유압밸브, 유압호스 등 다양한 유압부품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신뢰성평가센터는 금속, 고무, 플라스틱, 도료, 윤활유 등과 같은 재료의 물성을 시험하는 분석장비를 구비하여 소재 단계부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복합부식 시험기와 내구성 시험기 등을 활용해 환경조건에 따른 소재의 열화 및 물성 변화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기종 개발 과정에서 주요 부품별 사용자 부하 측정을 통해 내구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신제품 양산 전에 목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부터 적용될 유럽과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신뢰성평가센터는 Tier-4 Interim 및 Final 대응 장비의 적기 출시를 위하여 각종 개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뢰성평가센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금속시험, 화학시험, 비파괴시험 및 계측기 교정분야 등 총 11개 분야 126여 항목에 대한 KOLA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공인 시험, 교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험평가 항목

- 제품의 Duty Cycle 측정 및 신제품 Reliability Growth 추진
- 각종 용접 구조물과 부품의 내구성 평가
- 유압부품, 구동부품, 기계요소부품 및 의장부품, 전기전자부품, 화공제품 등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 평가
- 필드 하자품의 고장 분석 및 소재, 열처리, 용접, 도장 등의 품질 향상 연구
- 금속 및 화공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과 물성 평가, 비파괴 검사
- 기계가공품에 대한 정밀 측정 및 공정용, 검사용 계측기류의 교정 검사
- 대형제품 또는 부품의 온습도 환경시험 및 열충격, 진동, 분진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시험
- 전문분야별 신뢰성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개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연구개발

두산인프라코어는 차세대 제품의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며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등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연구센터간 협업을 통해 R&D 효율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협력 프로그램(Global Engineering Alignment Program)과 DIGEST(Doosan Infracore Grobal Experience & Synergy)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유압, 전기전자, 소재 및 신뢰성 성장기술(Reliability Growth Technology) 등의 주요 기능별 전문가들이 개별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상호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 연구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호 교환, 파견 근무토록 하는 DIG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R&D 역량을 배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원은 하이브리드 동력기술을 활용해 밥캣의 하이브리드 미니굴삭기를 개발함으로써 소형 굴삭기 제품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부품 내마모 기술력을 활용해 유압펌프의 마모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기술원의 축적된 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밥캣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제 연구개발부문은 차별화된 제품 개발 기반을 다지기 위해 IST (Integrated Surface Technology), 전기전자, 유압,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분야를 중심으로 기반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고유가, 환경규제 등의 트렌드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동력기술 및 신연소기술 개발하고 있으며, 지능형 자동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i-Hand 굴삭기 개발, 초고속, 초정밀 공작기계 기술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남극의 세종기지에서 활약

남극 세종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산 굴삭기 Solar 220LC-V는 영하 40도의 추위에도 작동하도록 특별 제작되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 연구개발센터 운영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 성장 및 Top Tier 도약을 위한 Technology Leadership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R&D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R&D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Technology Leadership 확보 노력은 기술등록 및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엔진 연구개발에서 출원된 직무발명 실적 총 15건 가운데 10건이 배기규제 관련 기술로 환경관련 규제가 높아지면서 배기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R&D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방적인 지식경영 시스템과 체계적인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세스, 통합적인 특허 운영체계 등의 글로벌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연구원의 역량 강화, Techno MBA 교육을 통한 Global R&D Leader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0 사업분야별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

Construction Equipment

- 하이브리드 굴삭기, 지게차 양산화 개발
- 굴삭기 프론트 경량화 기술 개발(V38 프론트에 양산 적용 예정)
- Tier-4 대응 중대형 굴삭기/휠로더 및 통합 제어장치 개발
- Tier-4 대응 굴삭기용 신규 유압시스템 개발
- 멀티미디어 통합형 계기판 개발
- 건설기계용 원격관리시스템(TMS) 개발
- Bobcat 차세대 소선회 굴삭기 2기종 (MEX E14, E16) 개발
- Bobcat 차세대 M-Series 굴삭기 3기종(E42, E45, E50) 및 로더 2기종 (S850, T870) 개발
- Bobcat Utility Vehicles 4기종 (3200, 3400, 3450, 3400XL) 개발
- Bobcat Telescopic Handler 4기종 (TR35160, TR45190, TR50210, TR40250) 개발

Machine Tools

- CNC 대화형 프로그램 개발
- 이송계 Disturbance 저감기술 개발
- 터닝센터 열변위 저감기술 개발
- 강력절삭용 수평형 머시닝센터(NHM8000) 개발
- 3축 문형 머시닝센터(BM2740P) 개발
- 컴팩트형 NC보링(DBC110S) 개발
- 중형(PUMA 3100) 및 대형(PUMA 700XLY) 터닝센터 개발
- 중형 스위스턴(PUMA ST32G) 개발

Engines & Materials

- 미래 배기규제 대응 Green 엔진기술 개발
- Euro-5 대응 차량용 디젤엔진 및 천연가스 엔진 개발
- 북미 US2010 대응형 CNG엔진 개발
- 전차 1,500마력 엔진 개발

Forklifts

- 엔진식 7톤, 16톤 지게차 고급형 모델 (D70/160S-5 Plus) 개발
- 엔진식 18톤 지게차(DV180S-7) 개발
- 입승식 전동 Reach Truck 외관 개선모델 (BR18/25S-7) 개발
- 지게차 작업부하 감지기술(Weight Scale)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업 특성에 걸맞게 사회공헌 핵심분야를 구호, 지원, 나눔의 3가지로 선정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호활동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난, 재해로 고통 받고있는 글로벌 이웃들을 위해, 회사의 각종 인프라와 장비를 바탕으로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남서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굴삭기 등의 복구장비를 지원했고, 2008년 5월에는 중국 사천성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굴삭기 160여 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구호 성금을 중국 정부에 기탁하는 등 중국 국민들과 슬픔과 복구 노력을 함께 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중국 청해성 지진 피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이며 구호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지원 및 나눔활동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세계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교육시설을 설립,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나눔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장 주변 환경을 보호, 정화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희망소학교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오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후진양성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 3월 중국 강서성 무주시 임천구에 두산희망소학교가 설립됐는데, 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설립한 24번 째 학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희망소학교 설립 지원 외에도, 2007년부터 명예 교장제를 도입하고 두산희망기행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등 두산희망소학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인 두산공정기계(DICC)는 2010년 1월 21일 중국 산동성 연대시로부터 그간의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 받아 ‘ 사회책임이행 우수기업상 ’을 받았다. 중국 건설기계분야 선도기업인 DICC는 중국 현지 지역사회의 니즈를 적극 수렴, 반영하여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 왔다.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 Korea CSR 30 AWARD ’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경영 전문가들이 구축한‘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평가모델 ’을 기초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Korea (DJSI Korea) ”의 Industrial Engineering 부문에 처음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DJSI는 스위스 SAM과 미국 다우존스가 1999년 공동 개발한 지수로,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2010년에는 200여 개 국내 대기업 중 48개 기업이 DJSI Korea에 최종 선정되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

미국의 웨스트 파고와 그위너 지역의 많은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2010년 9월 25일 지역 암센터 지원 모금 활동에 참여했다.

체코 도브리스 밥캣 생산법인은 2010년 8월 7일부터 이틀간 체코 북부 리베레츠 지역의 폭우 및 홍수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Customer Value

동반성장 (Shared Growth)

두산인프라코어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에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혁신, 그리고 고객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체코, 노르웨이 등에 구축된 대규모 생산기지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 판매법인과 지사, 부품센터, 기술지원센터, 그리고 4천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를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안산에 전세계 부품 공급을 총괄하는 마스터 부품센터를 갖추고 해외 각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부품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럽 DIEU의 A/S 시스템과 중국 DICC의 SAN 150 프로그램 등 권역별 부품 운영시스템을 글로벌 부품 통합 운영시스템과 연계, 가동함으로써 전세계 고객들에게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은 △협력업체 지원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무지원 △공정거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동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협력업체 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49개 사에 219억원 규모의 형치구를 지원하였으며, 4개 협력업체의 부품 국산화 개발 5건을 지원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신제품 개발 시 모기업의 기술을 지원하여 부품의 품질 향상과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공작기계 관련 국산화 2건 및 신제품 개발 1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연계한 직무 및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 20개 과정을 개설해 151개 협력업체 임직원 총 1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 및 1, 2차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상생펀드를 통해 12개 협력업체에 365억원, 네트워크 론으로 97개 협력업체에 555억원, 패밀리 기업대출로 13개 협력업체에 5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26개 협력업체에 13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수요 발생 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과 부문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 협력센터와 함께 '경영닥터제'를 도입해, 우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혁신활동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5월 한국 정부에서 주관한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조기에 도입하여 이를 협력사까지 확산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산그룹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어느 기업보다 강조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선두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동반성장 실적을 최고경영자 평가에 반영할 정도로, 이를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조직문화 정비에 주력

두산인프라코어는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10 Winning Team Workshop'을 실시했다. 이 워크샵을 통해 팀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수립하며 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뢰와 자부심, 재미가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조직 내 다양한 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신바람 나는 일터(Great Work Place) 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를 위해 경영진과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기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는 MBWA(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 및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소통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역과 팀장들에게 리더십 교육과 코칭(coaching)을 지속 실시해 리더십 역량을 배가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O.N.E. Doosan 글로벌 매거진'을 2010년 8월부터 3개 언어 (한,중,영) 로 매월 제작해 전세계 임직원들간의 소통과 이해, 두산인으로서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매거진 발간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세계 임직원들간의 소통과 이해, 두산인으로서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O.N.E. Doosan'이라는 제호의 글로벌 매거진을 3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ONE'은 '조직의 뉴스와 이벤트(Organizational News & Events)'의 약자이면서 하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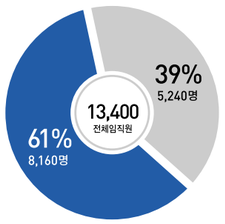
특히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뛸 수 있도록 '2010 Winning Team Workshop'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팀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수립하며 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신규인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 신규인력들이 두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신입 및 경력사원 입사 시 총괄 CEO 및 BG/부문장들이 직접 환영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시간을 함께 가질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및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The Value of Our People

국내 · 외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 3,400여 임직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5,240여 임직원과 해외 사업장의 8,160여 명의 임직원, 그리고 4천여 개에 달하는 해외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경영을 가속하며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전세계 임직원 현황



Our Mission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Way를 기반으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육성 ”을 인재관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Value, Leadership, Global, 그리고 Expert 영역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Cultural Diversity Management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리의 미래가‘ 인재 ’에 있다는 믿음으로 전세계 임직원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의 강점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임직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Diversity Management를 채택하고 있다.

인재확보 노력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에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장비를 직접 전시해 호응을 얻었고, 기업 총수가 채용설명회에 달려가 미래의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 중 글로벌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ealth and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두산인프라코어는 예방과 작업 안전에 초점을 맞춘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국내 · 외 전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세계 사업장과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시행되고 있다.

Training Courses & Lifelong Learning Programs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과 팀장급을 대상으로 1:1 또는 그룹 Coaching / Mentoring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Level별 문제해결능력과정 (Problem Solving Course) 등 다양한 계층별 리더십 프로그램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Global Busines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내 MBA급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Business Academy (Executive MBA, Core MBA, Mini MBA, Junior MBA, Techno-MBA)가 오픈되어 연간 약 250명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R&D Professional Course, Purchase Academy 등을 통하여 직무별 육성체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재중시 경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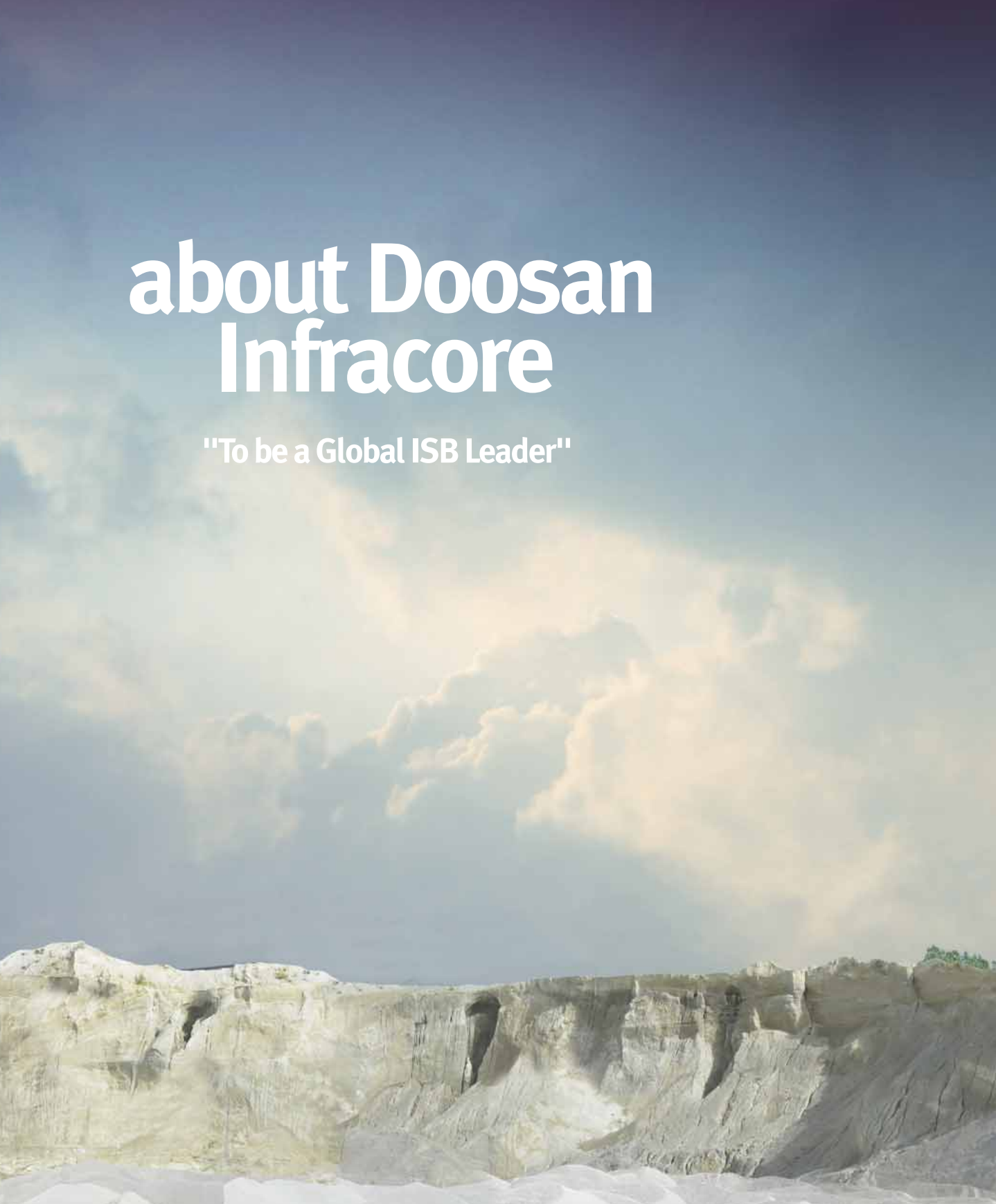
두산은 사람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자는 의미의‘ 2G 전략 ’을 꾸준히 추진중이다. 2G 전략은 조직구성원의 성장으로 사업의 성장이 이뤄지고 이 수익을 다시 조직원에게 재투자해 두산은 물론, 임직원의 핵심역량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를 일컫는다.
(Winning Team Workshop에서 공기자동화BG 마케팅팀이 제출한 팀 미션, 연강원에서 열린 리더십 교육과정 PLP L-Camp의 3기 수료식)

글로벌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직원이 연 1회 외국어 테스트에 응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Premium & Intensive Language Course에 입과하여 외국어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Global Experience Program, 신입사원 해외연수 Wind up Program, 주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두산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제도로는 이공계 분야의 전략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 연수제도로 석/박사 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강사 양성 교육, 학습조직 Learning Party 제도 등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인재육성 Infra 즉, 사내 e-HRD Portal ‘ GLAD ’사이트를 개발하여 개인별 육성계획을 반영한 연간 자기개발 계획 수립 및 사외교육 신청이 가능토록 구성하였고, 약 1,000여 개 과정으로 구성된 e-Learning / 독서통신 교육을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G 전략

비즈니스 시스템은 인재개발과 전략수행, 재무관리를 망라한다. 두산은 이를 통해 그룹의 성장동력인 2G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2G 전략은 사람의 성장(Growth of People)을 통해 사업의 성장(Growth of Business)을 이룬다는 두산 고유의 믿음이다. 이는 두산과 두산인의 전략을 하나로 묶고 체계화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킨다. 두산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실적 중심의 문화를 뒷받침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about Doosan Infracore

"To be a Global ISB Leader"

프로필

" 글로벌 Top 3 기계회사 "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인 조선기계제작소가 설립됐다. 이는 한국 최고이자 세계적인 기계 브랜드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시초로서, 당시의 공장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역동적 성장세를 자랑하는 글로벌 두산의 근간이 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중장비와 소형 건설장비(Compact Equipment), 산업차량, 공작기계, 엔진, 어태치먼트 및 유틸리티 장비 등 모든 참여 사업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한 글로벌 기계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 기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오랜 경험과 축적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1990년대 들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1990년의 벨기에 생산법인에 이어 1994년에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세계 각지에 현지 생산/판매법인, 지사, 기술지원센터 및 부품센터, 그리고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당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은 두산의 글로벌 경영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지로 역할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4월 두산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다시 한번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 새 출범 이후 ' 글로벌 Top 3 기계회사 ' 비전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 온 두산인프라코어는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밥캣, 목시 등에 대한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생산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본격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및 발전

1937. 06 조선기계제작소 설립
1966. 08 주식 증권시장 상장
1975. 05 인천 엔진소재공장 준공
1977. 08 창원 공작기계 공장 준공
1977. 11 인천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공장 준공
1981. 02 기술원 설립
1986. 05 굴삭기 독자모델 양산 개시
1990. 11 벨기에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Europe S.A.)
1994. 04 영국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U.K.,Ltd.)
1994. 10 중국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China Co.,Ltd.)
1996. 11 한국품질대상 수상
1998. 01 독일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Germany GmbH.)
1998. 01 미국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
1998. 04 중국 연대 지게차 생산공장 준공
2000. 10 대우중공업(주)에서 분할, 대우종합기계(주)로 출범
2003. 07 중국 현지법인 설립 (현 Doosan Infracore Machine Tools Yantai Co.,Ltd.)
2004. 11 무역의 날 「10억불 수출탑」수상

두산인프라코어 출범 및 도약

2005. 04 두산인프라코어(주) 출범
2006. 09 중국 지주회사 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Co.,Ltd.설립
2006. 10 연합캐피탈 인수 (현 두산캐피탈)
2007. 01 두산메카텍 공작기계 사업부문 인수
2007. 03 HCNG 엔진 원천기술 보유업체 CTI 지분 인수
2007. 04 중국 현지법인 Doosan Infracore Suzhou Co.,Ltd. 설립
2007. 06 인도 현지법인 Doosan Infracore India Private Ltd.
2007. 07 중국 연대유화기계 인수 (현 Doosan Infracore Shandong Co.,Ltd.)
2007. 09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Inc. (DII) 설립
2007. 11 Ingersoll Rand의 Compact Equipment 사업 등 인수
2007. 11 무역의 날 「20억불 수출탑 」수상
2008. 09 독일 지게차 업체 ATL 인수 (현 Doosan Infracore Logistics Europe GmbH.)
2008. 11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 설립
2008. 12 노르웨이 굴절식 덤프트럭 생산업체 Moxy Engineering AS 인수
2008. 12 방위산업BG 분할, 두산DST (Doosan Defense Systems &Technology Co.,Ltd.)로 출범
2009. 11 서공두산엔진유한공사 (XDEC) 설립
2010. 10 군산 건설기계공장 준공

2010년 사업권역별 매출

* 세계 권역별 매출실적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MEA
Europe, the Middle East & Africa
11,367
단위 : 억원

China
25,734
단위 : 억원

NA/O
North America & Oceania
16,414
단위 : 억원

AP/E
Asia-Pacific & Emerging Markets
26,026
단위 : 억원

2010년 사업부문별 매출

건설기계BG	31,821	공기자동화BG	10,459	산업차량BG	4,197
Compact Equipment	24,875	엔진 · 소재BG	6,565	기타	1,625

매출총액, **79,541**

*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Visit us online at
www.doosaninfracore.com www.doosaninfra.com

Global H.Q. (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빌딩
Tel : 02-3398-8114 Fax : 02-3398-8117

인천공장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11
Tel : 032-211-1114 Fax : 032-211-1231

창원 남산공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3
Tel : 055-280-4114 Fax : 055-287-1140

창원 대원공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82
Tel : 055-270-0497 Fax : 055-273-0141

군산공장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8-5
Tel : 063-447-3042 Fax : 063-447-3059

Financial Statements

Summary 64
재무상태표 66
손익계산서 7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71
자본변동표 72
현금흐름표 73
연결재무재표 76
연결손익계산서 80
연결자본변동표 82
연결현금흐름표 8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89

Summary

안정성을 견지한 성장

2010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한 한해였다.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그동안 실행해온 글로벌 성장전략과 경쟁력 확보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건설기계BG와 DII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두산인라코어는 확실한 재무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2010년 중국 및 신흥시장의 판매호조와 선진국 시장의 완만한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은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4조 3,176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5,427억원을 기록했다.

각 BG별로 고른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 개선 성과가 나타났고, 밥캣을 비롯한 자회사 실적도 호조를 보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2011년에도 지속되어 글로벌 Top 3 업체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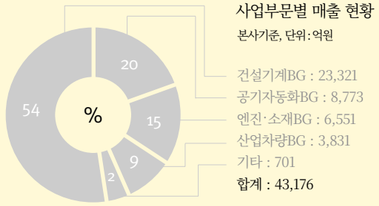
균형잡힌 Product Mix 실현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위엔화 절상과 내수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 추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어 중국 내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시장에서 2010년에 전년대비 49% 증가한 2만 1,789대의 굴삭기와 254% 증가한 3,198대의 휠로더를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건설기계 판매 호조로, 2010년 건설기계BG의 전체 매출은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2조 3,321억원을 기록했다.

공기자동화BG는 2010년에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한 8,7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특히 두산 공작기계의 해외 인지도 상승과 함께 전통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이던 일본 업체의 침체로 이러한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엔진·소재BG도 중국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2010년에 본사기준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6,55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엔진·소재BG는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중국 디젤엔진 합작공장의 양산 개시 및 북미시장 개척 성과 등으로 성장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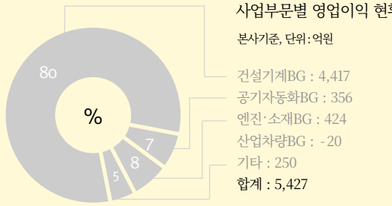
2010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도 크게 완화됐다. 밥캣은 내부 구조조정 효과와 글로벌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확대, 단가 인상 등으로 2010년 3/4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영업이익 개선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회사 펀더멘틀의 개선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에 대한 추가지원 우려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본사기준, 단위:억원

건설기계BG : 23,321
공기자동화BG : 8,773
엔진·소재BG : 6,551
산업차량BG : 3,831
기타 : 701
합계 : 43,176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현황

본사기준, 단위:억원

건설기계BG : 4,417
공기자동화BG : 356
엔진·소재BG : 424
산업차량BG : -20
기타 : 250
합계 : 5,427

재무적 안정성 증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에 재무적 안정성이 한층 개선되었다. 영업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에는 산업차량BG 매각 및 중국 DICC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Top tier에 걸맞은 재무적 신뢰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2009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조정 효과와 글로벌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DII의 실적 개선 및 DICC의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지분법 손실규모도 전년대비 25% 줄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적인 재무적 안정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보다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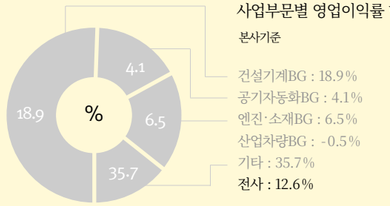
장기 성장 지속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인지도를 강화하고 원가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2010년 연초 대비 67%(연말종가 기준)의 상승율을 기록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놀라운 성과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사업은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굴삭기와 휠로더의 경쟁력 강화, 밥캣과의 시너지 창출, 서공두산엔진 공장 준공 등으로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인도, CIS 등 신흥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자동화BG도 한국과 중국 시장, 신흥시장의 성장 지속 및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산 공작기계의 경쟁력이 선진국 업체들에 비해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2011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재무지표의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던 두산인프라코어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기계산업분야 Top 3 ’비전 달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현황

본사기준

건설기계BG : 18.9%
공기자동화BG : 4.1%
엔진·소재BG : 6.5%
산업차량BG : -0.5%
기타 : 35.7%
전사 : 12.6%

재무상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자산				
Ⅰ.유동자산		1,580,230,216,804		1,528,665,535,646
(1)당좌자산		1,123,704,414,444		1,171,198,803,311
1.현금및현금성자산	63,882,728,375		35,869,145,646	
2.단기금융상품	40,044,425,311		32,329,981,216	
3.매출채권	715,135,438,085		611,534,270,867	
대손충당금	(12,931,227,339)		(15,417,389,587)	
4.미수금	126,746,441,828		49,866,114,406	
대손충당금	(17,244,376,554)		(17,360,504,125)	
5.미수수익	9,384,125,143		5,628,931,188	
6.선급금	1,505,679,788		672,119,562	
7.선급비용	5,064,140,921		14,342,162,652	
8.유동성파생상품자산	27,005,401,925		190,507,850,999	
9.유동성확정계약자산	127,433,921,210		231,884,620,879	
10.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37,531,041,196		31,223,104,912	
11.기타당좌자산	146,674,555		118,394,696	
(2)재고자산		456,525,802,360		357,466,732,335
1.상품	62,596,828,791		52,284,972,635	
평가충당금	(10,404,380,109)		(7,202,785,313)	
2.제품	109,516,015,027		55,481,173,157	
평가충당금	(3,616,640,614)		(3,837,767,054)	
3.재공품	37,668,750,481		51,362,263,480	
평가충당금	(13,044,652)		(25,898,987)	
4.원재료	216,621,735,020		188,275,428,788	
평가충당금	(7,833,381,247)		(11,058,630,674)	
5.저장품	1,418,774,535		934,089,271	
6.미착품	50,571,145,128		31,253,887,032	
Ⅱ.비유동자산		2,862,990,193,728		3,249,939,630,386
(1)투자자산		1,337,761,623,170		1,549,924,342,037
1.장기금융상품	11,500,000		11,500,000	
2.장기투자증권	32,583,885,635		31,527,969,734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67,391,025,035		1,482,189,272,303	
4.장기대여금	37,775,212,500		36,195,600,000	
(2)유형자산		1,300,570,148,548		1,243,665,937,354
1.토지	785,223,003,619		789,885,298,219	
손상차손누계액	(113,424,300)		(113,424,300)	

재무상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2.건물	298,193,359,830		285,422,116,217	
감가상각누계액	(73,549,020,982)		(65,977,106,052)	
손상차손누계액	(4,374,395,309)		(4,374,395,309)	
국고보조금	(5,037,500,002)		(4,173,750,000)	
3.구축물	68,627,578,799		57,578,971,226	
감가상각누계액	(23,507,980,982)		(20,913,536,228)	
4.기계장치	415,461,473,591		381,735,075,522	
감가상각누계액	(266,896,688,025)		(255,831,724,212)	
국고보조금	(879,303,918)		(650,210,831)	
5.차량운반구	9,884,532,027		8,982,630,276	
감가상각누계액	(6,208,349,617)		(6,968,273,498)	
6.공구와기구	129,035,013,930		110,720,308,024	
감가상각누계액	(87,252,964,657)		(75,866,163,270)	
7.비품	72,091,866,670		69,965,897,062	
감가상각누계액	(49,709,054,441)		(47,959,334,244)	
8.건설중인자산	43,384,470,784		25,336,674,968	
국고보조금	(3,802,468,469)		(3,133,116,216)	
(3)무형자산		187,939,988,640		156,415,765,029
1.산업재산권	1,911,886,829		1,830,142,692	
2.개발비	135,274,765,929		98,594,801,293	
국고보조금	-		(131,589,911)	
3.기타무형자산	50,753,335,882		56,122,410,955	
(4)기타비유동자산		36,718,433,370		₩ 299,933,585,966
1.보증금	10,809,145,898		14,850,381,676	
대손충당금	(38,925,482)		(99,127,557)	
2.회원권	25,948,212,954		20,846,518,773	
3.비유동성확정계약자산	-		264,335,813,074	
자산총계		₩ 4,443,220,410,532		₩ 4,778,605,166,032

재무상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부채				
Ⅰ.유동부채		1,575,845,006,932		1,897,766,498,981
1.매입채무	545,305,474,373		322,405,564,133	
2.단기차입금	91,325,373,093		562,383,905,004	
3.미지급금	142,819,936,805		124,634,696,378	
현재가치할인차금	(66,290,662)		(181,694,021)	
4.선수금	17,188,522,892		16,785,455,141	
5.예수금	5,258,097,627		3,776,854,062	
6.미지급비용	109,930,984,839		54,952,937,970	
7.미지급법인세	5,644,424,376		39,184,118,494	
8.예수보증금	5,648,243,099		5,543,360,237	
9.유동성파생상품부채	15,138,264,342		106,940,461,060	
10.유동성장기차입금	165,275,547,841		177,148,039,797	
현재가치할인차금	-		(1,706,318)	
11.유동성사채	435,000,000,000		462,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7,976,938)		(284,706,466)	
12.판매보증충당부채	23,239,484,364		10,084,492,942	
13.반품충당부채	388,012,026		352,443,065	
14.기타유동부채	13,816,908,855		12,042,277,503	
Ⅱ.비유동부채		1,554,098,788,155		1,599,916,189,924
1.장기차입금	636,234,341,473		701,356,731,605	
2.사채	703,000,000,000		668,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267,782,952)		(1,405,391,923)	
3.장기미지급금	-		2,906,181,007	
현재가치할인차금	-		(67,252,977)	
4.퇴직급여충당부채	163,638,044,814		145,584,654,464	
퇴직보험예치금	(81,489,305,871)		(79,830,006,375)	
국민연금전환금	(954,372,830)		(1,078,646,130)	
5.비유동성파생상품부채	3,787,257,389		14,905,341,311	
6.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132,150,606,132		149,544,578,942	
부채총계		₩ 3,129,943,795,087		₩ 3,497,682,688,905

재무상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자본				
Ⅰ.자본금		842,242,420,000		841,543,420,000
1.보통주자본금	842,242,420,000		841,543,420,000	
Ⅱ.자본잉여금		5,298,993,755		1,960,219,955
1.주식발행초과금	4,552,370,555		1,652,819,955	
2.기타자본잉여금	746,623,200		307,400,000	
Ⅲ.자본조정		(28,821,900,785)		(34,642,008,271)
1.자기주식처분손실	(7,908,685,537)		(7,908,685,537)	
2.주식선택권	13,506,003,795		11,500,104,824	
3.기타자본조정	(34,419,219,043)		(38,233,427,558)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472,139,105,597		485,544,570,004
1.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222,473,630		365,186,313	
2.지분법자본변동	170,402,909,660		214,680,031,125	
3.부의지분법자본변동	(9,069,669,807)		(2,384,341,370)	
4.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환산손실	(41,420,260,000)		(67,048,128,000)	
5.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이익	3,124,450,533		2,114,020,866	
6.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실	(7,038,380,944)		(20,464,452,897)	
7.토지재평가잉여금	355,917,582,525		358,282,253,967	
Ⅴ.이익잉여금 (결손금)		22,417,996,878		(13,483,724,561)
1.법정적립금	-		23,000,000,000	
2.임의적립금	-		277,050,310,754	
3.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22,417,996,878		(313,534,035,315)	
자본총계		₩ 1,313,276,615,445		₩ 1,280,922,477,127
부채 및 자본총계		₩ 4,443,220,410,532		₩ 4,778,605,166,032

손익계산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Ⅰ.매출액		4,317,640,153,501		2,663,206,050,082
Ⅱ.매출원가		3,117,707,081,547		1,972,196,306,408
Ⅲ.매출총이익		1,199,933,071,954		691,009,743,674
Ⅳ.판매비와관리비		657,203,625,644		465,713,618,523
Ⅴ.영업이익		542,729,446,310		225,296,125,151
Ⅵ.영업외수익		623,957,863,527		1,371,431,269,748
1.이자수익	16,584,166,507		12,563,464,174	
2.외환차익	86,677,559,379		70,474,936,551	
3.외화환산이익	7,414,290,733		16,606,577,487	
4.대손충당금환입	1,802,309,687		590,809,773	
5.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86,176,533		-	
6.지분법이익	184,082,413,801		105,071,685,797	
7.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220,611,583,377	
8.유형자산처분이익	5,025,993,776		1,449,947,371	
9.파생상품거래이익	171,374,298,605		281,024,759,814	
10.파생상품평가이익	26,216,222,994		213,251,156,907	
11.확정계약평가이익	42,687,093,981		402,436,148,075	
12.잡이익	81,907,337,531		47,350,200,422	
Ⅶ.영업외비용		1,080,857,036,184		1,857,403,891,386
1.이자비용	143,882,099,641		146,473,085,180	
2.외환차손	99,798,957,067		94,494,015,211	
3.외화환산손실	7,112,633,993		23,230,918,846	
4.매출채권처분손실	6,170,127,311		7,474,057,952	
5.재고자산감모손실	1,018,697,106		6,492,437,797	
6.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		72,775,699	
7.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93,491,191	
8.지분법손실	401,638,115,720		541,096,014,917	
9.유형자산처분손실	1,098,133,198		1,163,498,083	
10.무형자산손상차손	8,602,758,834		508,226,755	
11.파생상품거래손실	35,509,243,039		367,268,429,241	
12.파생상품평가손실	10,418,862,772		7,205,572,534	
13.확정계약평가손실	319,238,972,982		639,577,869,078	
14.기부금	10,596,651,110		5,801,430,000	
15.잡손실	35,771,783,411		16,452,068,902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손실)		85,830,273,653		(260,676,496,487)
Ⅸ.법인세비용		47,578,402,189		50,427,228,457
Ⅹ.당기순이익 (손실)		38,251,871,464		(311,103,724,944)
Ⅺ.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손실)		227		(1,981)
희석주당순이익 (손실)		227		(1,98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1년 3월 25일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리확정일 2010년 3월 26일

단위 : 원

	2010		2009	
Ⅰ.미처분이익잉여금 (결손금)		22,417,996,878		(313,534,035,315)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결손금)	(13,483,724,561)		4,799,437,251	
2.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2,350,150,025)		(7,229,747,622)	
3.당기순이익 (손실)	38,251,871,464		(311,103,724,944)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결손금처리액)		22,417,996,878		(300,050,310,754)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2,417,996,878		-	
2.임의적립금이입액	-		(277,050,310,754)	
3.법정적립금이입액	-		(23,000,000,000)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결손금)		-		(13,483,724,561)

자본변동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09.01.01 (보고금액)	841,036,920,000	612,500,000	(195,409,358,196)	571,153,189,390	328,310,855,605	1,545,704,106,799
연차배당	-	-	-	-	(23,461,107,600)	(23,461,107,600)
처분후이익잉여금	-	-	-	-	304,849,748,005	1,522,242,999,199
당기순손실	-	-	-	-	(311,103,724,944)	(311,103,724,94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7,229,747,622)	(7,229,747,622)
자기주식 처분	-	-	192,025,381,003	-	-	192,025,381,003
주식선택권	506,500,000	1,347,719,955	2,861,721,468	-	-	4,715,941,42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	-	105,074,834,576	-	-	-	105,074,834,576
종속기업지분변동차액 (지분법)	-	(105,074,834,576)	(34,119,752,546)	-	-	(139,194,587,122)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	547,327,869	-	547,327,869
지분법자본변동	-	-	-	(120,755,070,036)	-	(120,755,070,03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680,510,491	-	680,510,49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23,969,472,632)	-	(23,969,472,63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	-	8,183,717,567	-	8,183,717,567
현금흐름위험회피외화환산손실	-	-	-	49,850,472,000	-	49,850,472,000
토지재평가이익	-	-	-	(146,104,645)	-	(146,104,645)
2009.12.31(전기말)	841,543,420,000	1,960,219,955	(34,642,008,271)	485,544,570,004	(13,483,724,561)	1,280,922,477,127
2010.01.01(보고금액)	841,543,420,000	1,960,219,955	(34,642,008,271)	485,544,570,004	(13,483,724,561)	1,280,922,477,127
당기순이익	-	-	-	-	38,251,871,464	38,251,871,46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2,350,150,025)	(2,350,150,025)
주식선택권	699,000,000	3,338,773,800	2,005,898,971	-	-	6,043,672,771
기타자본조정	-	-	3,814,208,515	-	-	3814208515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	(142,712,683)	-	(142,712,683)
지분법자본변동	-	-	-	(44,277,121,465)	-	(44,277,121,46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6,685,328,437)	-	(6,685,328,437)
현금흐름위험회피외화환산손실	-	-	-	25,627,868,000	-	25,627,868,000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	-	-	1,010,429,667	-	1,010,429,66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	-	13,426,071,953	-	13,426,071,953
토지재평가이익	-	-	-	(2,364,671,442)	-	(2,364,671,442)
2010.12.31 (당기말)	842,242,420,000	5,298,993,755	(28,821,900,785)	472,139,105,597	22,417,996,878	1,313,276,615,445

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4,265,411,927	(629,113,426,200)
1.당기순이익 (손실)	38,251,871,464	(311,103,724,944)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872,338,878,669	1,309,584,147,366
주식보상비용 (급여)	3,562,972,771	3,650,271,423
퇴직급여	34,638,839,446	17,936,261,888
감가상각비	58,235,492,982	48,419,591,881
무형자산상각비	26,311,157,133	24,741,544,529
대손상각비	-	1,062,197,615
이자비용	1,480,938,838	825,912,927
외화환산손실	7,112,633,993	23,230,918,846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	72,775,699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93,491,191
지분법손실	401,638,115,720	541,096,014,917
유형자산처분손실	1,098,133,198	1,163,498,083
무형자산손상차손	8,602,758,834	508,226,755
파생상품평가손실	10,418,862,772	7,205,572,534
확정계약평가손실	319,238,972,982	639,577,869,078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267,414,501,505)	(974,013,479,156)
외화환산이익	7,414,290,733	16,606,577,487
대손충당금환입	1,802,309,687	590,809,773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86,176,533	-
지분법이익	184,082,413,801	105,071,685,79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220,611,583,377
유형자산처분이익	5,025,993,776	1,449,947,371
파생상품평가이익	26,216,222,994	213,251,156,907
확정계약평가이익	42,687,093,981	402,436,148,075
잡이익	-	13,995,570,369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61,089,163,299	(653,580,369,466)
매출채권의 증가	(87,536,929,986)	(122,690,151,617)
미수금의 감소 (증가)	(77,602,812,038)	2,649,507,587
미수수익의 증가	(3,755,193,955)	(2,848,238,910)
선급금의 감소 (증가)	(833,560,226)	11,222,647,764
선급비용의 감소 (증가)	9,278,021,731	(9,211,920,193)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증가)	153,083,586,302	(7,710,317,073)
확정계약자산의 감소	92,234,633,742	240,868,419,221
유동성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	(6,307,936,284)	(3,249,319,994)
기타당좌자산의 감소 (증가)	(28,279,859)	311,676,516

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2010		2009	
재고자산의 감소 (증가)	(99,059,070,025)		171,611,849,669	
보증금의 감소 (증가)	4,041,235,778		(7,391,411,889)	
매입채무의 증가	222,819,862,546		55,876,780,827	
미지급금의 증가 (감소)	17,809,681,264		(83,693,970,910)	
선수금의 증가	403,067,751		3,629,793,764	
예수금의 증가 (감소)	1,481,243,565		(820,880,619)	
미지급비용의 증가	54,978,046,869		32,480,222,168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33,539,694,118)		(77,422,000,815)	
예수보증금의 증가 (감소)	104,882,862		(4,922,038,867)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57,686,082,729)		(811,508,466,279)	
확정계약부채의 감소	-		(59,693,054,505)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가 (감소)	13,154,991,422		(4,979,572,171)	
반품충당부채의 증가	35,568,961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감소)	1,774,631,352		(8,191,936,778)	
장기미지급금의 감소	(2,906,181,007)		(2,855,952,286)	
퇴직금의 지급	(16,821,928,563)		(27,263,053,744)	
관계사로부터의 퇴직금승계액	723,517,159		680,657,077	
퇴직보험예치금의 감소 (증가)	(1,659,299,496)		7,287,140,058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124,273,300		329,288,900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감소)	(23,221,113,019)		53,923,933,633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5,129,756,096)		(638,668,473,537)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91,282,583,226		3,419,146,235,87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772,876,544,689		2,789,189,932,758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1,241,134,301	
장기대여금의 회수	1,015,700,000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359,802,883		830,182,5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46,881,483,156		625,307,364,05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	62,842,040,299		-	
토지의 처분	6,796,551,320		933,763,550	
건물의 처분	64,455,078		1,041,922,803	
구축물의 처분	59,289,418		1,760,000	
기계장치의 처분	71,502,200		516,102,191	
차량운반구의 처분	214,191,825		79,300,000	
공구와기구의 처분	1,486,096		2,449,943	
비품의 처분	77,928,062		2,323,750	
산업재산권의 처분	21,608,200		-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현금흐름표

	2010		2009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46,412,339,322)		(4,057,814,709,41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780,590,988,784		2,820,452,579,60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0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1,412,607,230		17,932,785,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167,858,523,698		1,034,989,382,327	
장기대여금의 대여	3,459,900,000		39,330,900,000	
토지의 취득	443,583,800		2,624,463,519	
건물의 취득	1,109,483,140		619,967,364	
구축물의 취득	1,049,553,250		516,358,390	
기계장치의 취득	28,238,724,612		19,751,473,265	
차량운반구의 취득	2,672,841,872		504,473,556	
공구와기구의 취득	21,555,407,625		10,468,258,907	
비품의 취득	9,805,148,106		3,631,638,438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62,423,810,246		44,396,274,509	
산업재산권의 취득	480,627,920		507,449,087	
개발비의 증가	55,461,483,818		56,137,234,366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4,747,961,040		4,951,471,073	
회원권의 취득	5,101,694,181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1,122,073,102)		1,279,637,872,265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174,560,903,906		2,786,245,166,169	
단기차입금의 차입	1,585,088,403,906		1,531,615,107,634	
장기차입금의 차입	118,935,000,000		46,392,935,998	
사채의 발행	468,056,800,000		1,017,671,008,077	
주식선택권의 행사	2,480,700,000		1,065,670,000	
자기주식의 처분	-		189,500,444,46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95,682,977,008)		(1,506,607,293,904)	
단기차입금의 상환	2,056,534,937,213		1,374,244,534,183	
장기차입금의 상환	177,148,039,795		28,901,652,121	
사채의 상환	462,000,000,000		80,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		23,461,107,600	
IV.현금의 증가 (I +II+III)		28,013,582,729		11,855,972,528
V.기초의 현금		35,869,145,646		24,013,173,118
VI.기말의 현금		63,882,728,375		35,869,145,646

연결재무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자산				
Ⅰ.유동자산		3,731,304,314,141		3,372,198,086,544
(1)당좌자산		2,314,506,772,659		2,219,954,599,558
1.현금및현금성자산	476,779,222,203		399,777,796,291	
2.단기금융상품	43,119,256,919		35,301,316,966	
3.단기투자자산	25,140,357,492		-	
4.매출채권	1,435,484,594,574		1,188,566,545,363	
대손충당금	(62,413,560,924)		(74,856,470,575)	
5.단기대여금	6,935,184,452		868,386,272	
6.미수금	115,959,265,294		80,126,245,098	
대손충당금	(17,574,357,842)		(17,653,483,591)	
7.미수수익	10,097,137,925		6,360,141,477	
8.선급금	52,992,990,913		110,893,597,394	
9.선급비용	24,854,264,848		21,097,817,610	
10.유동성파생상품자산	27,005,401,925		190,521,467,133	
11.유동성확정계약자산	127,433,921,210		231,884,620,879	
12.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44,650,367,867		43,623,979,541	
13.기타당좌자산	4,042,725,803		3,442,639,700	
(2)재고자산		1,416,797,541,482		1,152,243,486,986
1.상품	57,905,693,469		191,652,824,506	
평가충당금	(25,953,475,810)		(43,372,519,727)	
2.제품	639,469,036,935		275,231,018,309	
평가충당금	(28,108,402,114)		(20,004,884,987)	
3.재공품	82,239,331,396		190,450,004,966	
평가충당금	(159,914,472)		(644,138,226)	
4.원재료	541,809,610,932		466,225,317,499	
평가충당금	(29,943,285,353)		(31,567,489,438)	
5.저장품	2,846,536,189		3,534,226,970	
6.미착품	176,692,410,310		120,739,127,114	
Ⅱ.비유동자산		6,645,551,439,275		7,365,762,980,948
(1)투자자산		175,229,848,037		107,412,896,074
1.장기금융상품	17,088,554,837		11,500,000	
2.장기투자증권	32,586,014,795		31,530,185,794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77,156,048,125		75,792,404,672	
4.장기대여금	357,058,240		78,805,608	
5.기타투자자산	48,042,172,040		-	

연결재무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2)유형자산		1,830,873,697,180		1,815,241,818,632
1.토지	807,907,571,044		814,985,336,302	
손상차손누계액	(113,424,300)		(113,424,300)	
2.건물	570,846,438,642		538,291,367,661	
감가상각누계액	(142,794,009,589)		(110,445,370,490)	
손상차손누계액	(4,374,395,309)		(4,374,395,309)	
국고보조금	(5,037,500,002)		(4,173,750,000)	
3.구축물	82,345,115,279		71,775,877,807	
감가상각누계액	(27,717,536,806)		(25,781,817,988)	
4.기계장치	817,105,759,170		768,204,219,413	
감가상각누계액	(441,101,685,036)		(393,553,202,894)	
국고보조금	(879,303,918)		(650,210,831)	
5.차량운반구	27,264,352,888		23,281,524,720	
감가상각누계액	(15,146,115,595)		(14,245,632,801)	
6.공구와기구	132,483,756,200		115,368,279,821	
감가상각누계액	(88,600,230,253)		(78,729,771,933)	
7.비품	121,339,728,317		109,282,106,371	
감가상각누계액	(77,786,795,458)		(67,031,273,990)	
8.건설중인자산	78,934,440,375		76,285,073,289	
국고보조금	(3,802,468,469)		(3,133,116,216)	
(3)무형자산		4,556,135,833,927		5,048,070,850,616
1.영업권	3,196,225,168,158		3,545,811,808,448	
2.산업재산권	1,120,218,831,562		1,267,845,633,210	
3.개발비	137,704,813,106		111,102,453,889	
국고보조금	-		(131,589,911)	
4.기타무형자산	101,987,021,101		123,442,544,980	
(4)기타비유동자산		83,312,060,131		395,037,415,626
1.보증금	20,211,518,635		21,531,670,240	
대손충당금	(38,925,482)		(99,127,557)	
2.회원권	26,328,026,904		56,685,669,379	
3.비유동성확정계약자산	-		264,335,813,074	
4.장기성매출채권	5,157,545,838		1,736,655,730	
5.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31,653,894,236		50,846,734,760	
자산총계		₩ 10,376,855,753,416		₩ 10,737,961,067,492

연결재무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부채				
Ⅰ.유동부채		3,149,373,430,176		3,232,611,209,840
1.매입채무	1,178,323,361,940		757,440,835,114	
2.단기차입금	465,397,288,857		914,814,950,976	
3.미지급금	304,161,315,553		235,007,774,069	
현재가치할인차금	(66,290,662)		(181,694,021)	
4.선수금	32,890,320,079		47,807,396,651	
5.예수금	18,065,526,048		41,721,664,282	
6.미지급비용	256,311,958,229		248,574,573,203	
7.미지급법인세	54,764,458,719		75,122,268,571	
8.예수보증금	20,121,347,041		20,195,010,840	
9.유동성파생상품부채	15,596,507,661		118,338,477,169	
10.유동성장기차입금	166,187,223,007		177,634,763,198	
현재가치할인차금	-		(1,706,318)	
11.유동성사채	435,000,000,000		462,00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7,976,938)		(284,706,466)	
12.판매보증충당부채	171,382,461,007		115,900,501,345	
13.반품충당부채	388,012,026		352,443,065	
14.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3,004,854,968		1,009,449,574	
15.기타유동부채	27,913,062,641		17,159,208,588	
Ⅱ.비유동부채		4,824,070,543,979		4,962,309,069,264
1.장기차입금	3,264,508,232,556		3,380,743,430,703	
2.사채	707,840,325,000		672,962,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267,782,952)		(1,405,391,923)	
3.장기미지급금	48,259,966,189		37,594,634,051	
현재가치할인차금	-		(67,252,977)	
4.임대보증금	618,308,286		528,441,749	
5.퇴직급여충당부채	655,006,849,137		657,171,687,375	
퇴직보험예치금	(81,489,305,871)		(80,574,935,175)	
국민연금전환금	(954,372,830)		(1,078,646,130)	
6.공사손실충당부채	-		5,597,512,674	
7.기타충당부채	278,351,040		-	
8.비유동성파생상품부채	3,787,257,389		14,905,341,311	
9.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148,984,055,764		221,885,844,208	
10.기타비유동부채	79,498,660,271		54,046,103,398	
부채총계		₩ 7,973,443,974,155		₩ 8,194,920,279,104

연결재무제표

제 11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2010		2009	
자본				
Ⅰ.지배회사지분		1,306,375,118,467		1,278,572,327,103
(1)자본금		842,242,420,000		841,543,420,000
1.보통주자본금	842,242,420,000		841,543,420,000	
(2)연결자본잉여금		5,298,993,755		1,960,219,955
1.주식발행초과금	4,552,370,555		1,652,819,955	
2.기타자본잉여금	746,623,200		307,400,000	
(3)연결자본조정		(29,179,709,041)		(34,642,008,271)
1.자기주식처분손실	(7,908,685,537)		(7,908,685,537)	
2.주식선택권	13,506,003,795		11,500,104,824	
3.기타자본조정	(34,777,027,299)		(38,233,427,558)	
(4)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472,007,593,734		485,544,570,004
1.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222,473,630		365,186,313	
2.부의지분법자본변동	(342,440,295)		(2,384,341,370)	
3.해외사업환산이익	165,938,050,924		220,895,823,085	
4.해외사업환산손실	(4,393,882,639)		-	
5.외화환산손실	(41,420,260,000)		(67,048,128,000)	
6.파생상품평가이익	3,124,450,533		2,114,020,866	
7.파생상품평가손실	(7,038,380,944)		(26,680,244,857)	
8.토지재평가이익	355,917,582,525		358,282,253,967	
(5)연결이익잉여금(결손금)		16,005,820,019		(15,833,874,585)
Ⅱ.소수주주지분		1,097,036,660,794		1,264,468,461,285
자본총계		2,403,411,779,261		2,543,040,788,388
부채 및 자본총계		₩ 10,376,855,753,416		₩ 10,737,961,067,492

연결손익계산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Ⅰ.매출액		7,954,143,823,851		5,538,209,935,272
Ⅱ.매출원가		5,957,762,128,840		4,538,520,657,533
Ⅲ.매출총이익		1,996,381,695,011		999,689,277,739
Ⅳ.판매비와관리비		1,541,791,733,928		1,394,976,652,663
Ⅴ.영업이익 (손실)		454,589,961,083		(395,287,374,924)
Ⅵ.영업외수익		505,223,257,333		1,273,898,673,827
1.이자수익	34,234,459,463		66,057,215,716	
2.배당금수익	8,005,063		9,980,230	
3.임대료	214,830,498		117,769,145	
4.외환차익	106,296,804,139		86,464,105,798	
5.외화환산이익	12,888,767,523		39,766,529,043	
6.대손충당금환입	273,842,438		17,386,987,840	
7.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86,176,533		-	
8.지분법이익	1,511,744,888		10,915,402,337	
9.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86,892,552,900	
10.유형자산처분이익	5,193,790,023		7,069,577,012	
11.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48,969,092	
12.파생상품거래이익	171,374,298,605		282,525,404,580	
13.파생상품평가이익	26,216,222,994		213,251,156,907	
14.확정계약평가이익	42,687,093,981		402,436,148,075	
15.채무면제이익	-		1,993,820	
16.잡이익	104,137,221,185		60,254,881,332	
Ⅶ.영업외비용		945,219,668,697		1,699,440,255,863
1.이자비용	267,137,794,785		388,071,767,714	
2.지급보증료	511,983,128		153,687,469	
3.외환차손	104,894,639,750		96,764,923,541	
4.외화환산손실	47,632,990,155		27,129,915,290	
5.매출채권처분손실	7,540,204,558		7,795,541,361	
6.재고자산감모손실	2,943,701,925		7,499,517,213	
7.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		72,775,699	
8.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93,491,191	
9.지분법손실	17,147,019,326		7,763,876,963	
10.기타의대손상각비	17,166,337		-	
11.유형자산처분손실	1,488,099,251		5,623,880,919	
12.무형자산손상차손	42,567,669,167		508,226,755	
13.파생상품거래손실	38,668,353,129		367,268,429,241	
14.파생상품평가손실	21,418,653,931		30,945,929,709	
15.확정계약평가손실	319,238,972,981		639,577,869,078	
16.기부금	11,170,850,397		6,671,323,053	
17.잡손실	62,841,569,877		113,499,100,667	
Ⅷ.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손실)		14,593,549,719		(820,828,956,960)
Ⅸ.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이익)		107,831,575,968		(58,902,838,221)
Ⅹ.계속사업손실		93,238,026,249		761,926,118,739
Ⅺ.중단사업이익		-		114,553,365,479
(법인세효과 당기: - 원, 전기: 35,992,005,375원)				
Ⅻ.연결당기순손실		93,238,026,249		647,372,753,260
지배회사지분순이익 (손실)		31,839,694,604		(313,453,874,969)
소수주주지분순손실		(125,077,720,853)		(333,918,878,291)
ⅩⅢ.주당손익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손실)		189		(4,852)
기본주당순이익 (손실)		189		(1,996)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손실)		189		(4,852)
희석주당순이익 (손실)		189		(1,996)

연결손익계산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연결자본변동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소수주주지분	총계
2009.01.01(보고금액)	841,036,920,000	612,500,000	(195,409,358,196)	570,622,913,260	326,073,885,751	1,578,364,203,308	3,121,301,064,123
연차배당	-	-	-	-	(23,461,107,600)	-	(23,461,107,600)
처분후이익잉여금	-	-	-	-	302,612,778,151	1,578,364,203,308	3,097,839,956,52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7,229,747,622)	-	(7,229,747,622)
당기순손실	-	-	-	-	(313,453,874,969)	(333,918,878,291)	(647,372,753,260)
자기주식 처분	-	-	192,025,381,003	-	-	-	192,025,381,003
주식선택권	506,500,000	1,347,719,955	2,861,721,468	-	-	-	4,715,941,42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	-	105,074,834,576	-	-	-	-	105,074,834,576
종속기업지분변동차액	-	(105,074,834,576)	(34,119,752,546)	-	-	138,651,021,681	(543,565,441)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	365,186,313	-	-	365,186,313
장기투자증권평가손실	-	-	-	182,141,556	-	-	182,141,55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680,510,491	-	-	680,510,491
해외사업환산이익	-	-	-	(38,150,514,564)	-	(126,694,424,496)	(164,844,939,060)
해외사업환산손실	-	-	-	530,276,130	-	(64,034,313)	466,241,817
외화환산손실	-	-	-	49,850,472,000	-	-	49,850,472,000
파생상품평가이익	-	-	-	(23,969,472,632)	-	-	(23,969,472,632)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0,206,199,265	-	12,328,801,257	22,535,000,522
소수주주지분의 변동	-	-	-	-	-	(7,181,836,133)	(7,181,836,133)
연결범위의 변동	-	-	-	(84,773,141,815)	2,236,969,855	2,983,608,272	(79,552,563,688)
2009.12.31(전기말)	841,543,420,000	1,960,219,955	(34,642,008,271)	485,544,570,004	(15,833,874,585)	1,264,468,461,285	2,543,040,788,388
2010.01.01(보고금액)	841,543,420,000	1,960,219,955	(34,642,008,271)	485,544,570,004	(15,833,874,585)	1,264,468,461,285	2,543,040,788,388
당기순이익(손실)	-	-	-	-	31,839,694,604	(125,077,720,853)	(93,238,026,249)
주식선택권	699,000,000	3,338,773,800	2,005,898,971	-	-	-	6,043,672,771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	-	-	(142,712,683)	-	-	(142,712,68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2,041,901,075	-	-	2,041,901,075
해외사업환산이익	-	-	-	(54,957,772,161)	-	(50,000,648,996)	(104,958,421,157)
해외사업환산손실	-	-	-	(4,393,882,639)	-	-	(4,393,882,639)
외화환산손실	-	-	-	25,627,868,000	-	-	25,627,868,000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010,429,667	-	-	1,010,429,667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9,641,863,913	-	4,736,194,190	24,378,058,103
토지재평가이익	-	-	-	(2,364,671,442)	-	-	(2,364,671,442)
연결실체간 지분거래	-	-	3,456,400,259	-	-	1,644,708,168	5,101,108,427
종속회사 유상증자	-	-	-	-	-	1,265,667,000	1,265,667,000
2010.12.31(당기말)	842,242,420,000	5,298,993,755	(29,179,709,041)	472,007,593,734	16,005,820,019	1,097,036,660,794	2,403,411,779,261

연결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68,327,146,027	(188,183,178,057)
1.당기순손실	(93,238,026,249)	(647,372,753,260)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034,524,337,281	1,301,683,365,393
주식보상비용 (급여)	3,562,972,771	3,650,271,423
퇴직급여	86,439,142,881	58,088,739,267
감가상각비	184,463,113,708	188,090,437,087
무형자산상각비	309,897,767,857	339,974,089,471
이자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1,480,938,838	825,912,927
외화환산손실	46,819,986,570	26,467,864,904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	72,775,699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93,491,191
지분법손실	17,147,019,326	7,763,876,963
유형자산처분손실	1,488,099,251	5,623,880,919
무형자산손상차손	42,567,669,167	508,226,755
파생상품평가손실	21,418,653,931	30,945,929,709
확정계약평가손실	319,238,972,981	639,577,869,078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88,444,578,828)	(791,569,066,589)
외화환산이익	12,375,707,971	38,870,708,237
대손충당금환입	273,842,438	17,386,987,840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86,176,533	-
지분법이익	1,511,744,888	10,915,402,33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86,892,552,900
유형자산처분이익	5,193,790,023	7,069,577,012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48,969,092
파생상품평가이익	26,216,222,994	213,251,156,907
확정계약평가이익	42,687,093,981	402,436,148,075
채무면제이익	-	1,993,820
잡이익	-	13,995,570,369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15,485,413,823	(50,924,723,601)
매출채권의 증가	(106,320,796,130)	(22,522,508,565)
미수금의 감소 (증가)	(36,492,830,246)	53,476,166,664
미수수익의 증가	(3,736,996,448)	(2,783,789,070)
선급금의 감소 (증가)	57,900,606,481	(36,614,175,765)
선급비용의 감소 (증가)	(3,756,447,238)	5,748,791,218
미수법인세환급액의 감소	-	47,705,873,061

연결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유동성파생상품자산의 감소 (증가)	153,097,202,436		(7,769,178,617)	
유동성확정계약자산의 감소	92,234,633,742		240,868,419,221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	(1,026,388,326)		(13,899,215,692)	
기타당좌자산의 증가	(600,086,103)		(17,262,928,214)	
재고자산의 감소 (증가)	(264,554,054,496)		533,438,470,838	
보증금의 감소 (증가)	1,259,949,530		(9,322,774,527)	
장기성매출채권의 증가	(2,892,730,998)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 (증가)	19,192,840,524		(15,070,028,915)	
매입채무의 증가	421,629,779,499		8,529,559,146	
미지급금의 증가	167,271,555,659		113,221,384,197	
선수금의 증가 (감소)	(14,917,076,572)		11,413,254,697	
예수금의 증가 (감소)	(23,656,138,234)		10,079,819,851	
미지급비용의 증가	7,737,385,026		34,195,191,313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20,357,809,852)		(7,191,057,389)	
예수보증금의 증가 (감소)	(73,663,799)		6,412,355,037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1,995,405,394		1,009,449,574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73,255,133,824)		(839,471,294,109)	
확정계약부채의 감소	-		(59,693,054,505)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가	55,481,959,662		4,329,692,452	
반품충당부채의 증가	35,568,961		2,338,959,938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감소)	10,753,854,053		(4,556,957,587)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감소)	10,664,369,823		(2,866,487,015)	
임대보증금의 증가	89,866,537		67,571,340	
퇴직금의 지급	(77,275,895,980)		(98,330,962,254)	
관계사로부터의 퇴직금승계액	723,517,159		680,657,077	
퇴직보험예치금의 감소 (증가)	(914,370,696)		7,175,051,172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124,273,300		329,288,900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감소	(5,597,512,674)		(11,094,444,397)	
기타충당부채의 증가	278,351,04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	(75,010,895,849)		(36,784,609,362)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5,453,122,462		53,288,786,686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8,671,304,680)		(165,198,340,996)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32,626,373,865		3,397,565,074,11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772,773,048,831		2,794,041,364,281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1,241,134,301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연결현금흐름표

	2010	2009
단기대여금의 감소	403,775,173	260,093,319,728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359,989,783	830,182,5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	189,032,364,056
토지의 처분	7,473,657,176	934,505,698
건물의 처분	3,564,692,754	32,676,353,625
구축물의 처분	64,070,561	212,919,480
기계장치의 처분	36,312,508,001	63,035,626,695
차량운반구의 처분	1,820,482,428	892,861,668
공구와기구의 처분	1,619,627,644	197,609,539
비품의 처분	1,788,768,516	2,690,347,026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4,260,574,523	24,507,385,621
개발비의 감소	-	182,683,074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2,170,679,475	-
회원권의 처분	14,499,000	26,996,416,798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61,297,678,545)	(3,562,763,415,10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780,590,988,784	2,821,756,973,215
단기투자자산의증가	25,140,357,492	-
단기대여금의 증가	7,362,128,134	245,018,781,28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077,054,837	1,000,000,00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1,412,607,230	17,933,019,19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15,101,389,083	13,853,862,440
장기대여금의 증가	1,142,840,132	3,181,061,374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2,597,334,384	-
토지의 취득	3,015,272,888	4,462,869,178
건물의 취득	57,850,941,232	14,732,656,691
구축물의 취득	3,377,100,505	5,083,639,221
기계장치의 취득	109,194,053,841	207,756,472,676
차량운반구의 취득	11,494,240,197	3,463,552,697
공구와기구의 취득	22,576,991,757	11,321,351,922
비품의 취득	24,120,552,813	16,590,245,838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89,956,435,499	77,616,977,450
산업재산권의 취득	497,650,875	1,569,249,255
개발비의 증가	57,910,808,790	58,006,926,629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15,777,235,891	23,669,325,148
회원권의 취득	5,101,694,181	35,746,450,901

연결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유동성파생상품자산의 감소 (증가)	153,097,202,436		(7,769,178,617)	
유동성확정계약자산의 감소	92,234,633,742		240,868,419,221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	(1,026,388,326)		(13,899,215,692)	
기타당좌자산의 증가	(600,086,103)		(17,262,928,214)	
재고자산의 감소 (증가)	(264,554,054,496)		533,438,470,838	
보증금의 감소 (증가)	1,259,949,530		(9,322,774,527)	
장기성매출채권의 증가	(2,892,730,998)		-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 (증가)	19,192,840,524		(15,070,028,915)	
매입채무의 증가	421,629,779,499		8,529,559,146	
미지급금의 증가	167,271,555,659		113,221,384,197	
선수금의 증가 (감소)	(14,917,076,572)		11,413,254,697	
예수금의 증가 (감소)	(23,656,138,234)		10,079,819,851	
미지급비용의 증가	7,737,385,026		34,195,191,313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20,357,809,852)		(7,191,057,389)	
예수보증금의 증가 (감소)	(73,663,799)		6,412,355,037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1,995,405,394		1,009,449,574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73,255,133,824)		(839,471,294,109)	
확정계약부채의 감소	-		(59,693,054,505)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가	55,481,959,662		4,329,692,452	
반품충당부채의 증가	35,568,961		2,338,959,938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감소)	10,753,854,053		(4,556,957,587)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감소)	10,664,369,823		(2,866,487,015)	
임대보증금의 증가	89,866,537		67,571,340	
퇴직금의 지급	(77,275,895,980)		(98,330,962,254)	
관계사로부터의 퇴직금승계액	723,517,159		680,657,077	
퇴직보험예치금의 감소 (증가)	(914,370,696)		7,175,051,172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124,273,300		329,288,900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감소	(5,597,512,674)		(11,094,444,397)	
기타충당부채의 증가	278,351,040		-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	(75,010,895,849)		(36,784,609,362)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25,453,122,462		53,288,786,686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8,671,304,680)		(165,198,340,996)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32,626,373,865		3,397,565,074,11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772,773,048,831		2,794,041,364,281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1,241,134,301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연결현금흐름표

	2010	2009
단기대여금의 감소	403,775,173	260,093,319,728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359,989,783	830,182,5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	189,032,364,056
토지의 처분	7,473,657,176	934,505,698
건물의 처분	3,564,692,754	32,676,353,625
구축물의 처분	64,070,561	212,919,480
기계장치의 처분	36,312,508,001	63,035,626,695
차량운반구의 처분	1,820,482,428	892,861,668
공구와기구의 처분	1,619,627,644	197,609,539
비품의 처분	1,788,768,516	2,690,347,026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4,260,574,523	24,507,385,621
개발비의 감소	-	182,683,074
기타무형자산의 처분	2,170,679,475	-
회원권의 처분	14,499,000	26,996,416,798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61,297,678,545)	(3,562,763,415,10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780,590,988,784	2,821,756,973,215
단기투자자산의증가	25,140,357,492	-
단기대여금의 증가	7,362,128,134	245,018,781,28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077,054,837	1,000,000,000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1,412,607,230	17,933,019,19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15,101,389,083	13,853,862,440
장기대여금의 증가	1,142,840,132	3,181,061,374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12,597,334,384	-
토지의 취득	3,015,272,888	4,462,869,178
건물의 취득	57,850,941,232	14,732,656,691
구축물의 취득	3,377,100,505	5,083,639,221
기계장치의 취득	109,194,053,841	207,756,472,676
차량운반구의 취득	11,494,240,197	3,463,552,697
공구와기구의 취득	22,576,991,757	11,321,351,922
비품의 취득	24,120,552,813	16,590,245,838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89,956,435,499	77,616,977,450
산업재산권의 취득	497,650,875	1,569,249,255
개발비의 증가	57,910,808,790	58,006,926,629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15,777,235,891	23,669,325,148
회원권의 취득	5,101,694,181	35,746,450,901

연결현금흐름표

제 11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2010	2009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8,400,913,674)	411,383,581,468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690,608,654,583	2,892,723,567,275
단기차입금의 차입	3,280,114,312,306	1,603,211,928,328
장기차입금의 차입	2,938,691,175,277	81,274,516,410
유동성사채의 발행	-	169,076,400,000
사채의 발행	468,056,800,000	848,594,608,077
주식선택권의 행사	2,480,700,000	1,065,670,000
자기주식의 처분	-	189,500,444,460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액	1,265,667,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349,009,568,257)	(2,481,339,985,807)
단기차입금의 상환	3,722,169,980,198	1,608,925,470,34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77,148,039,795	108,901,652,121
장기차입금의 상환	2,987,691,548,264	740,051,755,746
사채의 상환	462,0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23,461,107,600
IV.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감소)	(4,253,501,761)	42,041,353,413
V.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감소)	-	(17,721,834,250)
VI.현금의 증가 (I+II+III+IV+V)	77,001,425,912	82,321,581,578
VII.기초의 현금	399,777,796,291	317,456,214,713
VIII.기말의 현금	476,779,222,203	399,777,796,29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첨부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비교표시된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0년 3월 5일자 감사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관련 특기사항이 포함된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2010년 재무제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안 진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李 在 述

이 재 술

Global Network

Norway
Doosan Moxy AS

Belgium
EMEA Doosan Infracore Construction Equipment HQ
Doosan Infracore Europe S.A.

Germany
Doosan Infracore Logistics Europe GmbH

Czech
Doosan Bobcat Engineering s.r.o

France
Montabert Lyon

Ireland
Geith International Ltd.

France
Bobcat France / Pont Chateau

Shandong
Doosan Infracore Shangdong Co.,Ltd.

Beijing
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Co., Ltd.

Yantai
Doosan Infracore Machine Tools Yantai Co., Ltd.

Yantai
Doosan Infracore China Co.,Ltd.

Doosan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hina Co., Ltd.

Xuzhou Xugong Doosan Engine Co., Ltd.

Seoul
Doosan Infracore Co., Ltd.

Incheon
Incheon Plant

Changwon
Changwon Plant

Gunsan
Gunsan Plant

West Fargo
Bobcat Company

Gwinner
Bobcat Gwinner

Wahpeton
Bobcat Wahpeton

Statesville
Doosan Infracore Portable Power

Litchfield
Bobcat Litchfield

글로벌 네트워크

생산공장	23
판매법인	60
지사/사무소	57
연구센터	21

생산공장
판매법인
지사/사무소
연구센터

DOOSAN
Tramac
Montabert
Bobcat
Doosan
Moxy